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고승한 · 정지형 · 홍수성

Pending issue resea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현안연구 2012-06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고 승 한 · 정 지 형 · 홍 수 성



발 간 사

우리사회는 그 동안 산업화·민주화 그리고 외환위기를 겪어 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전쟁 이후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구조 변화는 앞으로 노동시장, 자산시장 그리고 국가재정 등에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약 713만명)를 차지하여 이미 은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확산으로 은퇴자 인구의 급증은 고령사회에 빨리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농어촌 지역에 이주하여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경향에 주목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에 맞게 인구규모의 증가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제주에 와서 많이 거주하게 되면 제주인구의 증가와 지역사회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오고, 더 나아가 제주지역 인구증가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우리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사이 출생)가 2010년부터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향후 노동 및 자산시장과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위상에 맞게 인구규모의 증가와 지역사회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타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의 인구유입을 통한 제주인구의 증가와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내용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정의, 현황 및 주요 특성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국내외 지원정책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관련 설문조사
- 제주지역에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인구유입 방안 도출

3.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주요 특성

1) 정의

- 베이비붐 세대는 특정한 시기에 출생률이 급상승하여 합계 출산율이 3.0% 이상의 연령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보이는 특정 세대를 말함.
- 은퇴자는 직장생활에서 공식적인 퇴직과 더불어 사회생활로부터 은퇴하여 집에서 일상을 보내는 연령층으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를 말함.

2) 주요 특성

① 베이비붐 세대

- 우리사회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경험을 하였고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 정치발전 그리고 경제위기 등을 경험하였음.
- 문화적으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의 중간에 위치하여 전통 문화와 신세대 문화의 특성들을 간직하고 있음.
- 부모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소비지출이 많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감을 느끼지만 자식에는 덜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음.
- 현재 보유한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중산층 의식을 갖고 있음.
- 자신의 건강과 자녀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② 은퇴자

- 가족 내 가장으로서의 지위 상실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 나약성을 표출함.
- 은퇴 후에 직장 동료보다 이웃관계에 더욱 관심을 보이지만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가짐.
- 은퇴자 대다수가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추세임.
- 고령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은퇴자의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등이 새로운 정책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은퇴자의 문제가 사회복지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은퇴자가 새로운 노인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향후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여 기존 노인들과 상이한 특성을 보일 것임.

4.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국내외 지원 정책

1) 우리나라 지원 정책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12년 7월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획하였음.
-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에 따른 정책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수립하였음.
-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상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업능력 개발 및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음.
- 다양한 고용연장지원 관련 제도(예, 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등)도 마련해 놓고 있음.
- 특히 귀농·귀촌지원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2) 외국의 지원 정책

- 미국은 1950~60년대에 노인복지 관련 법과 제도(노인복지법,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의료보험 신설)를 도입하였고, 1970년대에는 지역노인복지사무소와 지역봉사고용프로그램, 그리고 고령자 고용 및 훈련 지원법 등을 제정하였음.
- 1990년에는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와 고령자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특히 농촌 노인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였음.
- 2011년에는 노인복지사무소에서 지역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취업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미국은 최근에 활동적 노후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에 자원봉사, 평생교육, 여행체험, 문화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1947년~1949년)가 2007년부터 은퇴를 시작하였음.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70년대에 「중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 4월 1일부터는 65세까지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를 법으로 의무화하였음.
- 중고령자 재취업 및 고용지원, 고령자고용관계 지원금 제도, 실버인재센터 운영, 중고령자 창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제주의 지원 정책

- 지자체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귀농·귀촌지원 사업은 추진되고 있음.
-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주로 농업창업, 주택구입 신축, 주택수리 보조 등에 용자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가 읍·면·동에 개설·운영하여 정착주민(제주이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나갈 것임.
- 제주지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종합 지원정책이 수립되지 못하여 종합적이지 못함. 아울러 지원 총괄부서가 없어서 사업 발굴 미흡과 사업추진의 구심점이 약함.

5.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설계

- 조사대상은 현재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타 시·도에서 제주로 이주한 은퇴자를 모집단으로 삼았음.
- 표본집단(Sampling)은 제주에 방문 혹은 관광차 제주에 온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제주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임.

- 베이비붐 세대의 조사면접 대상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베이비붐 세대 여부, 성별, 연령 등이 고려되어 무작위로 표집(random sampling)된 302명이 최종 분석되었음.
- 은퇴자의 조사면접 대상자는 타 시·도에서 거주하다가 제주지역에 와서 거주하는 대상자들을 임의 표집(sampling)에 의하여 최종 86명이 선정되었음.
-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에 의존하였음.

2) 베이비붐 세대 조사 결과의 시사점

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54.3%)이 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이 가진 경력, 기술,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38.7%(117명)를 차지하여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유입에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② 현재 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거주지역

-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현재 퇴직한 사람은 38.1%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다른 지역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 비율은 48.7%(56명)으로 나타남.
-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게 된 이유들은 주로 복잡한 현재의 거주지역이 싫어서 공기 좋은 농촌지역에서 살고자 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 퇴직 베이비붐 세대들 가운데 향후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7.3%(53명)으로 나타나 앞으로 제주 이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로 이주하여 거주할 의향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심신의 치유에 적절한 지역, 제주 관광 후 살고 싶게 되어서 등임.

③ 현재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희망 거주지역

- 현재 조사대상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퇴직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진 사람은 45.5%(85명)를 차지하고 있음.
- 퇴직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마음이 편한 옛 친구와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 조사대상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44.9%(84명)가 향후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이주 의향을 가진 이유로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제주 관광 후 거주에 매력, 그리고 건강유지와 치유에 적절한 지역에 있음.

④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원 인식

- 조사응답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주도로 이주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책은 주로 거주 주택지 분양(28.2%, 84명), 일자리 알선(26.2%, 78명), 주택구입 및 수리비용 지원(15.8%, 47명)등과 관련이 있음.
-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34.6%, 103명), 제주사회 적응교육프로그램 운영(33.6%, 100명),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22.5%, 67명) 등을 교육적 지원 방안으로 인식하였음.
-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으로는 전담부서 설치(30.5%, 91명), 사회참여 연계를 위한 친목단체 알선(21.1%, 63명),

은퇴자 대상 컨설팅(16.8%, 50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조사응답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보건·복지 지원대책으로는 맞춤형 질병치료 시스템 마련, 우수한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우수한 노인전문병원 설립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음.

3) 은퇴자 조사 결과의 시사점

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 은퇴자 가운데 75.6%(65명)이 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대학원을 수료한 은퇴자가 약 20%(17명)을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고학력 은퇴자 인력이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은퇴 전 거주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45.3%(39명)을 차지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은퇴자 유입의 주요 전략 지역으로 인식됨.
- 은퇴 전 월평균 가계소득이 400만원 이상의 은퇴자가 41.9%(36명)이고, 특히 6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가진 은퇴자는 20.9%(18명)를 차지함. 따라서 제주에서 거주하는 타 시·도 은퇴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경우가 많음.

② 은퇴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 은퇴자의 은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3.7%, 44명)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은퇴자들이 제주에 어느 정도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은퇴 전에 종사한 분야를 보면, 사무관리직이 22.1%(19명), 전문직 및 공무원 19.8%(17명), 그리고 자영업 20.9%(18명) 등으로 나타남. 특히 사무관리직, 전문직 및 공무원 경력을 가진 은퇴자들의 경륜, 기술 및 정보, 네트워크 등을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주로 자녀문제와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과 관련되었음. 개인적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갖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에서 현재 종사하는 일을 보면, 은퇴자의 31.4%(27명)가 쉬고 있고, 사업하는 경우가 19.8%(17명), 자원봉사 14.0%(12명), 재취업 8.1%(7명), 농사일 7.0%(6명) 등으로 나타남.

③ 은퇴자의 제주생활 만족도

- 조사대상 은퇴자들이 제주에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52.4%(44명)이고, 나머지는 5년 이상(47.7%, 40명)으로 나타남. 특히 5년 미만의 거주기간을 가진 은퇴자들에 대한 성공적 정착을 위한 도움이 필요함.
- 제주에 와서 거주하게 된 특별한 동기를 보면,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과 풍광, 복잡한 도시 거주 불만족, 건강회복 및 질병 치유, 친구 및 친지의 제주거주 등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제주거주 은퇴자들의 제주생활 만족도는 전체 은퇴자들 가운데 81.2%(69명)로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생활에 만족하는 주요 요인이 청정환경과 자연풍광, 자아실현, 취미생활 향유 등에 있음. 특히 절반 이상 은퇴자(60.5%, 52명)가 제주가 가진 청정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제주생활에 만족을 느꼈음.
- 타 시·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은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존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④ 은퇴자에 대한 지원 인식

-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제주도로 이주하여 생활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책은 주로 일자리 알선(37.2%, 29명), 거주 주택지 분양

(19.2%, 15명), 주택구입 및 수리비용 지원(15.4%, 12명)등과 관련이 있음.

- 조사대상 은퇴자들은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45.8%, 38명), 제주사회 적응교육프로그램 운영(21.7%, 18명),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21.7%, 18명) 등을 교육적 지원 방안으로 인식하였음.
-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으로는 직업소개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34.5%, 29명), 행정기관의 전담부서 설치(25.0%, 21명), 은퇴자 대상 컨설팅(21.4%, 18명), 농사도우미 지원(10.7%, 9명)등을 제시하고 있음.
- 조사응답 은퇴자들에게 보건·복지지원 대책으로는 우수한 노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30.2%, 26명), 우수한 노인전문병원 개설(22.1%, 19명), 은퇴자 노인복지지원(17.4%, 15명), 노인건강 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 개설(16.3%, 14명)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음.

6. 향후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1) 기본방향

-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제주이주 희망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중심의 접근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유입 대상자의 전략적 선택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구유입 정책의 수립과 실천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기본전략

-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 지원 의존형 보다는 자립역량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전략

-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의 통합적 전략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인구의 전략적 선택
- 중앙 정부와의 협력적 전략

3) 향후 정책과제

□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① 중앙 정부 수준의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 베이비붐 세대 근로연장 지원 강화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60세 정년 법제화
 - 초고령사회 대비 65세 계속고용제도 도입
- 노인복지제도의 개선
 -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
 - 초고령사회 대비 (가칭)노인복지청 신설
 - (가칭)고령자고용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부문에 고령자고용할당제 의무화 (3%)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 농촌 및 지역주거지원법 제정
-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체제 구축
 -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노인·고령자 일자리 사업의 총괄지원 본부 신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산하에 제주지역분부를 제주권역에 설치·운영
 - 노-청 연계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 협동조합법(2012. 12. 1. 시행)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및 고용창출 지원
 - 귀농·귀촌사업의 지원 강화
- 「새로마지플랜 2015」의 주요 정책과제 실천
 -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기간 연장

- 비영리부문과 일자리 연계 사업 추진
- 노후자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
-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은퇴 중·고령자를 활용한 경제 신성장 동력화 사업 추진

②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방안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관련 조례 제정
 - (가칭) 「제주이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제주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의 활성화
 -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의 종합적 활성화 계획 수립
 - 센터는 읍·면 농어촌 지역에 개설·운영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동(洞) 지역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거점별로 센터의 설치·운영
 -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제로 운영 필요
- (가칭) 「제주이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사업」
 -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단지 조성 사업 추진 검토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대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의 공동 검토 필요
- (가칭) 「제3의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은퇴자 그리고 외국인 중심으로 전문성, 자발성, 공헌성 등을 고려한 인적자원 활용
 - 제3의 시각에서 도정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자문역할
- 공공기관의 특정 업무분야에 전문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은퇴자 및 외국인들의 경력, 기술, 전문적 지식, 인적네트워크 활용할 기회 부여
 - 전문성, 공헌성, 자발성에 근거한 공공부문에 시간제 근무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총괄 전담부서 설치
 - 행정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One-stop 지원체제 구축 필요
- 귀농·귀촌사업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귀농·귀촌 준비단계, 귀농·귀촌 실행단계 및 귀농·귀촌 이후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 필요
- 제주이주·정주 촉진사업
 - 민관협력형 사업형태로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혹은 은퇴자들이 다양한 체류(일주일, 한 달, 일 년 혹은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주거시설 마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주·정주 촉진사업을 지방공기업 형태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음.

□ 행정의 지원 의존형 보다 자립생활 역량 강화

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제주어(혹은 제주방언)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세대와 은퇴자를 위한 제주어 학습 기회 제공
- 제주사회 적응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제주의 전통, 문화, 풍습, 의례 등에 대한 이해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귀농의 집 등에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세대와 은퇴자 대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 직업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
 -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 직종 개발

② 개인 정착과정에서 정기적 조사 및 컨설팅 상담 지원

- 제주이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및 상담 지원
 - 정기적 실태조사는 제주정착주민센터에서 담당
 - 컨설팅 및 상담지원은 자원봉사자 혹은 성공 정착주민 활용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나눔·배려 및 협력체제 구축

① 지역사회의 민간단체·NGO 단체와 네트워킹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수요조사 실시
-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와 도내 대학 간 연계를 통한 상시 컨설팅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성공적 정착인과 새로운 이주자(베이비부머와 은퇴자) 간의 정기적 ‘만남의 광장’ 프로그램 운영

② 「귀농의 집」 개설 및 운영

- 읍·면 농촌지역에 개설·운영 필요
- 「귀농의 집」 개설은 읍·면지역의 폐교 및 마을 회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귀농의 집」은 「지역귀농인협의회」에서 운영 필요

③ 지역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

- 마을 자생단체(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등)들의 적극적 도움 필요
- 귀농 베이비부머와 은퇴자 대상으로 마을의 선도 농가에 의한 (가칭) 「마을영농멘토지원단」 운영
- 타 시·도에서 온 새로운 이주자들이 많을 경우 (가칭) 「마을다문 화회」 조직하여 자생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함.

□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① 우수한 보건·의료시설 구축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들 대부분이 중·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우수한 병원 시설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임.
- 제주지역에는 공공의료시설로는 의료원(제주시, 서귀포시) 2개소, 제주권역재활병원(2013년 말에 개원 예정) 1개소, 그리고 보건소(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46개소)가 6개소가 있음.
 - 공공의료시설(의료원)에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시설들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이지만 인력, 예산, 시설 등으로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노인 및 고령자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1차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재편화

② 맞춤형 노인질환 예방·치료시스템 구축

- 노인질환의 예방 및 치유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세대와 은퇴자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질환 예방 및 치료 관련 의료서비스 체제 마련이 필요함.
 - 서귀포시에 2013년 말에 개설 및 운영 예정인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의료서비스(특히 재활 및 치유) 제공에도 기여할 것임.
 - 행정기관, 공공보건의료시설(의료원, 재활병원, 보건소 등), 그리고 민간 병·의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세대와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이 농촌 혹은 중산간 지역이므로 용이한 접근성을 위해 행정 의료지원 서비스 개선도 필요함.

- 제주지역에 「노인전문병원」 개설 및 운영 필요
 - 제주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 타시·도에 비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제주이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의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해서도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함.
 - 노인의료서비스(노인병 예방·진단·치료, 노화방지, 운동, 재활 등)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 필요
 - 민간 혹은 공공부분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는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방법	4
3. 연구의 주요내용	5
4. 연구의 기대효과	5
5. 연구의 한계점	6
제2장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의미와 주요 특성	7
1.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의미	7
2.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	11
3.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6
4.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효과	30
제3장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국내의 지원정책	36
1. 우리나라의 지원정책	36
2. 외국의 지원정책	49
3. 제주의 지원정책과 한계	67
제4장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74
1. 베이비붐 세대 조사결과	74
2. 은퇴자 조사결과	91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107
제5장 향후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115
1. 기본방향	116
2. 기본전략	117
3. 기본내용	118
4. 향후 인구유입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119

□ 참고문헌	144
□ 부 록 1 (베이비붐 세대 대상 설문조사표)	146
□ 부 록 2 (은퇴자 대상 설문조사표)	153
□ ABSTRACT	160

표 목차

<표 2-1> 한국과 미국,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시대 구분	7
<표 2-2> 추계인구에 의한 베이붐 세대의 인구분포	11
<표 2-3>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13
<표 2-4>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 추이	14
<표 2-5> 전국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비교	15
<표 2-6> 以前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17
<표 2-7> 과거와 미래 노인의 생활방식	27
<표 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 유형	40
<표 3-2> 고용연장지원 유형	41
<표 3-3 > 베이비붐 세대 근로연장 지원	42
<표 3-4> 미국의 노인복지에 관련된 정책현황	51
<표 3-5> 미국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도의 발전 과정	52
<표 3-6> 미국의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 프로그램 사례	55
<표 3-7> 미국의 고령자 재취업 및 사회참여 사례	56
<표 3-8> 일본의 고용관련 지원정책 사례	60
<표 3-9> 일본의 고령자 재취업 및 사회참여 사례	62
<표 3-10> 한·미·일 대응 비교	63
<표 3-11> 귀농·귀촌 정착지원 개요	69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77
<표 4-2> 현재 퇴직여부	78
<표 4-3> 타 지역 거주 의향 여부	79
<표 4-4> 타 지역으로 이주할 특별한 이유	79
<표 4-5> 타 지역 거주 시 희망 거주지역(다중응답)	80
<표 4-6> 제주지역으로 이주할 의향 여부	80
<표 4-7> 제주에서 거주할 의향 정도	81
<표 4-8> 제주로의 이주 의향 이유(다중응답)	81
<표 4-9> 제주로의 이주 의향이 없는 이유(다중응답)	82
<표 4-10> 퇴직 이후 타 지역 거주 의향 여부	83
<표 4-11> 타 지역으로 이주할 특별한 이유	83

<표 4-12> 타 지역의 희망 거주지역(다중응답)	84
<표 4-13> 제주로의 이주의향 여부	84
<표 4-14> 제주 거주의향 정도	85
<표 4-15> 제주 이주의향이 있는 이유(다중응답)	86
<표 4-16> 제주 이주의향이 없는 이유(다중응답)	87
<표 4-17> 베이비붐 세대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유형	88
<표 4-18> 베이비붐 세대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 유형	89
<표 4-19> 베이비붐 세대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유형	90
<표 4-20> 베이비붐 세대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보건·복지 지원 유형	91
<표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	94
<표 4-22> 은퇴 기간	95
<표 4-23> 은퇴 전 종사 분야	96
<표 4-24> 현재 가장 큰 고민(1순위)	96
<표 4-25> 현재 제주에서 종사하는 일	97
<표 4-26> 은퇴자의 제주 거주기간	98
<표 4-27> 은퇴자의 제주이주 이유	99
<표 4-28> 제주로 오게 된 특별한 동기(1순위)	99
<표 4-29> 제주생활 만족도	100
<표 4-30> 제주생활 만족 이유	101
<표 4-31> 제주생활 불만족 이유	101
<표 4-32> 은퇴자의 제주 거주형태	102
<표 4-33> 제주거주에 대한 인식	103
<표 4-34> 은퇴자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104
<표 4-35> 은퇴자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	105
<표 4-36> 은퇴자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106
<표 4-37> 은퇴자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보건·복지 지원	107

그림 목차

<그림 2-1> 인구구조의 변화 유형	14
<그림 2-2>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19
<그림 5-1> 제주이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 인재활용 추진 체계도	130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독특한 인구사회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이 종결된 직후 출산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지던 시기에 태어나서 산업화를 통한 고도 경제성장,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IMF 외환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정리해고 등을 경험한 세대임.
- 2010년 현재 전체 인구의 14.6%(약 713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중추적 정치, 경제 및 사회영역에서 활동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돌입하게 되었음.
 - 특히 베이비부머의 17.7%(약 126만명)가 읍·면지역(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
-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 영역에서 은퇴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사회참여, 돌봄지원, 건강문제 등을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영농활동으로부터 은퇴할 시기를 맞이하였지만 가족농을 계승할 젊은 영농후계자를 육성하지 못하면 농업 및 가족농 단절을 가져와 농촌지역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유럽 국가 등에서 나타나는 베이

비뭉 세대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방안을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성이 있음. 특히 이들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각종 제도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 가운데 사회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동시에 노후준비가 잘 된 일부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하여 공기와 물이 좋고, 안전하고, 아프면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거주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16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더구나 우리나라는 2012년에 ‘20-50클럽’에 속하게 되었지만¹⁾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2010년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현재 3천598만 정도이나 2050년에는 약 2천535만명으로 현재의 3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통계청, 2011).
 -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기준 643만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2천519만명으로 37.4%를 차지하여 그야말로 초고령사회로 변화할 것임.
-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와 이미 노동시장에서 나온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변화에 직면해 있음.
 -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2/3 정도가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13.9%는 농촌이주 계획을

1) ‘20-50클럽’이란 용어는 소득 수준이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규모가 5천만명이 이상인 나라들의 집합체를 통칭하는 말임. 여기에 속한 나라들이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6개국이 포함되었음.

구체적으로 갖고 있음(김창현 외. 2011).

- 제주지역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에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거주환경을 갖추고 있음.
 - 제주는 역사적으로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장수도(65세 노인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가 높은 지역임(고승한 외. 2011).
 -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아시아의 관광·휴양도시로 손색이 없는 자연환경, 호텔·숙박 시설 등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들이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함.
 - 제주는 2012년에 다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로 재인증 받았고, 아울러 정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 여성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노인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만일 현재 타 시·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지역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여 제주사람으로 성공적 정착을 하는 일은 제주지역의 인구유입 효과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2021년 상주인구 규모를 70만명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증가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구를 효과적으로 유입시키는 전략 수립이 중요함.
-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인구유입을 달성하는 중요한 대책들 가운데 하나가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

지역에 와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면서 제주의 사회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활력에 기여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 따라서 타 시·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은퇴자들이 제주지역 이주 후 성공적 정착을 통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제주의 인구규모를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인구유입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은퇴자들이 제주지역에 와서 정착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고, 동시에 제주지역 인구증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함.
 - 둘째,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국내외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향후 제주지역에 타 시·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으로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 고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전문가 포럼에서 의견수렴

3. 연구의 주요내용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정의, 현황 및 주요 특성 분석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국내외 지원정책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관련 설문조사
- 제주지역에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인구유입 방안 도출

4. 연구의 기대효과

- 베이비붐 세대·은퇴자를 위한 인구유입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베이비부머와 은퇴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거주지 선호도 정보 제공
 - 둘째, 제주지역의 인구증가 효과 제고에 대한 정책 활용 자료 제공
 - 셋째, 제주지역에 은퇴자 마을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생성
 - 넷째,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정책이 제주의 타 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다섯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유도
 - 여섯째, 제주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에 대한 학술연구 혹은 정책연구 자료 제공 및 연구관심 유발 효과

5.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으로 제주지역에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방안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와 연령층에 대한 인구유입 방안 마련은 제외하였음.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를 전국적 표집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조사비용과 표집방법 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국 단위 자료 수집을 하지 못하여 자료수집 결과 해석을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은퇴자 대상 설문조사는 타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은퇴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대신에 은퇴하여 제주에 이미 와서 거주하여 생활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또한 제주거주 은퇴자를 다양한 특성별(성별, 연령별, 소득수준, 은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표집하지(sampling) 못하였음.
- 제주의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데 최근 젊은층 인구유입을 촉진시키는 정책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귀농·귀촌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못하여 본 연구가 제주의 인구유입 방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제2장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의미와 주요 특성

1.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의미

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 베이비붐 세대는 특정한 시기에 출생율이 급상승하여 합계출산율²⁾이 3.0% 이상의 연령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보이는 특정 세대를 말하기도 함.
- 사실상,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른 시기에 비교하여 집중적으로 출산율이 높았을 때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기도 함.
- 비록 베이비붐 세대가 전쟁 이후 특정한 연령집단에 출산율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 마다 기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표 1. 참고).

<표 2-1> 한국과 미국,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시대 구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출생시기	1955~1963년	1946~1964년	1947~1949년
연령(2010년 기준)	47~55세	46~64세	61~63세
인구규모	714만명 (전체인구 중 14.6%)	7,700만명 (전체인구 중 30%)	678만명 (전체인구 중 5.3%)
합계출산율	-	2.94~3.76	4.0이상

자료 : 김영란·주재선, “베이비붐세대 남녀 특성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p. 3.

2)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함.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6·25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총 9년 동안에 출생한 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고 있음.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총 인구의 약 14.6%(약 714만명)를 차지하여 거대 인구집단을 이루고 있음 (통계청, 2010).
-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왔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정치·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사회참여 집단이었으며, 동시에 가족내부에서는 부모세대 부양을 책임지고 미래 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에 진력하는 세대로 불리기도 함.
- 베이비붐 세대는 장년층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어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중추적 세대로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은퇴자의 정의

- 퇴직자는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퇴직 임기에 맞추어 퇴직하는 사람을 말함.
- 그러나 은퇴자는 사회활동(특히 직장생활) 참여로부터 완전히 떠난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은퇴를 하였다가 다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없지 않음.
- 따라서 은퇴의 의미는 직장생활에서 공식적으로 퇴임하는 경우에 한정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집에서 일상생활을 대부분 보내는 경우로 인식함.
-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더욱 강화함에 따라 직장에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

- 공공부문에 있어서 퇴직 연령은 법적으로 대체로 만 60세이고 일반 기업체도 만 55세임. 그렇지만 일반 기업체의 경우는 40대 중·후반 혹은 50대 초·중반에는 많이 회사를 떠나게 됨.
- 최근의 노동시장에서 정년기간을 준수하는 일터가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을 제외하고 법적 정년기간을 꼭 준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임. 그렇지만 이들 퇴직자를 은퇴자로 분류하기에 힘들.
-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는 직장생활을 그만 두어 임금을 받는 노동시장(자영업 포함)에 참여하지 않는 동시에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은퇴자는 대체로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가 여기에 속함. 65세 이상 노인들은 공식 혹은 비공식 부문의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를 하고, 또한 사회참여도 가급적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연금이나 저축성 예금 혹은 부동산 임대 수입 등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함.
- 물론 65세 이상 노인들이 스스로 은퇴자로 인식하지 않고 퇴직 후에 재취업하여 임금을 받아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사회활동도 현역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체로 은퇴 연령으로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음.
- 은퇴는 다음과 같은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http://www.samsunglife.com>).
- 첫째, 환자형 은퇴는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많으

며, 여행, 사회봉사의 기회가 없고, 그리고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자녀에게 의존하는 전통적 은퇴 유형임. 환자형 은퇴자는 노후준비가 충분히 잘 안되어 있고 병이 들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하여서 자녀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밖에 없음.

- 둘째, 근심형 은퇴는 은퇴 전에 뚜렷한 준비나 계획없이 노후에 어떻게 할까 근심하는 유형임. 즉, 근심형 은퇴는 자산도 많지 않고 연금소득도 충분하지 못하고 경력과 기술도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현실에 맞춰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함.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나 개인저축이 부족하여 노후생활에 불안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근심하며 살아가는 유형임. 따라서 노후생활에서 보람이나 흥미를 찾기 어렵고 은퇴 전에 이루지 못한 자기개발에 아예 관심조차 갖지 못함.
- 셋째, 여가생활형 은퇴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시간도 많고, 특별히 걱정 근심이 없는 경우로써 이런 유형의 은퇴자는 관광지 혹은 휴양지에서 생활하거나 여행과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냄. 또한 여가생활형 은퇴자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에도 무관심하며 자기개발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강함.
- 넷째, 탐험가형 은퇴는 은퇴 후에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발굴하여 자아실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보이는 유형임. 그래서 탐험가형 은퇴자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새로운 일과 사업에 도전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임.

2.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

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

1)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분포

-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에서 1963년까지로 본다면 통계청(2010)의 장래인구추계에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추정치가 <표 2-2>에 나타나 있음.

<표 2-2> 추계인구에 의한 베이붐 세대의 인구분포

(단위 : 명)

출생년도	연령	추계인구	남자	여자
1955년	55세	663,319	331,806	331,513
1956년	54세	708,728	355,781	352,947
1957년	53세	742,633	374,712	367,921
1958년	52세	784,111	396,251	387,860
1959년	51세	823,550	414,400	409,150
1960년	50세	848,690	424,525	424,165
1961년	49세	858,141	429,629	428,512
1962년	48세	854,550	431,465	423,085
1963년	47세	841,625	428,648	412,977
소계		7,125,347(14.6%)	3,587,217	3,538,130
총 인구		48,874,539	24,540,316	24,334,223

자료 : 통계청 . 2010 <http://www.kosis.kr> (2010년 기준)

- 2010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전체 인구는 712만 5,347명으로 전체인구 4,887만 4,539명 가운데 14.6%를 차지하고 있음. 여기서 남자는 358만 7,217명, 여자는 353만 8,130명으로 나타남.
- 그러나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장래인구추

계에서 제시한 베이비붐 세대 인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2011. 1.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47세~55세)는 695만명으로 전체인구(4,799만명)의 14.5%를 차지하며, 남자는 495만명(51.9%), 여자는 459만명(48.1%)으로 여자가 3만명 더 많음.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에 진입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인구 고령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별로도 상이한 분포를 이루고 있음(김창현 외. 2012 : 2~3).
-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고령 인구비율의 증가폭이 2020년 0.7%p, 2025년 0.9%p로 예상되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 71.1%, 2030년에는 63.1%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 가속화가 예상됨.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 비수도권과 읍·면의 농촌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남(김창현 외. 2012).
- 2010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 695만 명 중, 도시(洞)에 전체의 82.8%인 576만 명, 농촌지역(畝·面)에는 17.2%인 1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0.8%p 감소함. 반면에 읍·면지역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각각 0.4%p씩 확대됨.
- 2010년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48.5%가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의 비중은 0.3%p 감소한 반면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의 비중은 각각 0.3%p와 0.1%p 증가하였음.

2) 은퇴자의 인구 분포

-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은퇴자 인구도 동시에 증가할 것임. 현재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행이 계속될 경우에 2030년 이후 전체인구가 감소 추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래서 생산가능인구가 동시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잠재적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임.

<표 2-5>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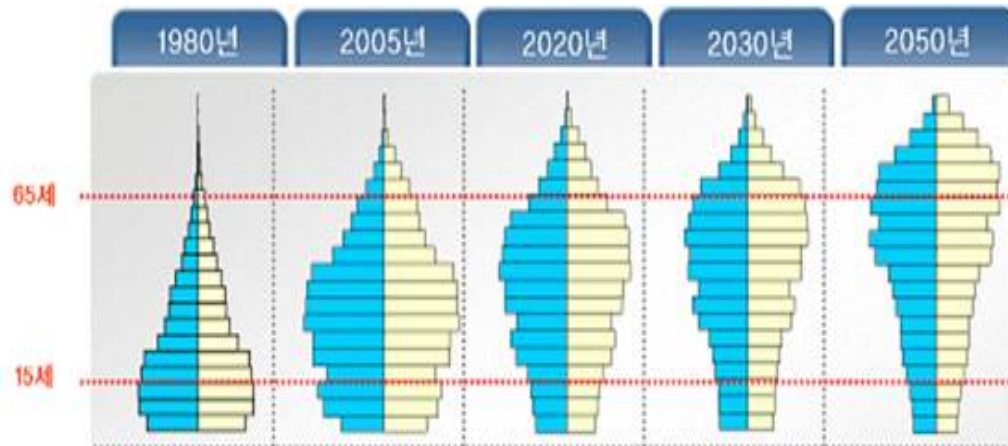
(단위 : 만 명, %)

연도 내용	1980년	2005년	2020년	2030년	2050년
총인구 (A)	3,812	4,814	4,933	4,864	4,234
생산가능인구(B)	2,372	3,453	3,551	3,130	2,242
노인인구 (C) C/A	146 (3.8)	437 (9.1)	770 (15.6)	1,181 (24.3)	1,616 (38.2)
유소년인구(D) D/A	1,295 (34.0)	924 (19.2)	612 (12.4)	553 (11.4)	376 (8.9)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1.

- 초고령사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현재의 유소년 인구보다 거의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인구구조와는 상반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그림 2-1. 참고).

<그림 2-1> 인구구조의 변화 유형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1.

-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은퇴자 비율이 2030년에는 23.1%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만큼 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표 2-4. 참고).
- 초고령사회에서 은퇴자 구성 비율이 자연스레 높기 때문에 은퇴자 대상 각종 사회경제정책(금융, 산업, 고용, 교육, 보건, 의료, 여가, 문화, 가족 등)들의 변화가 예상됨.

<표 2-4>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내용	연도					
	2000년	2010년	2019년	2020년	2026년	2030년
총인구	47,008	49,594	50,619	50,650	50,610	50,296
65세 이상 인구	3,395	5,302	7,314	7,667	10,113	11,604
구성 비율	7.2	10.7	14.4	15.1	20.0	23.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은퇴자 노인인구 비율은 4.21%p 증가하였고, 80세 이상 노인은 약 3%p 증가,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은 1.6%p 증가하였음(표 2-5. 참고).

<표 2-5> 전국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비교

(단위 : 명)

구분	총인구(A)		65세 이상 인구(B)		80세 이상 인구(C)		85세 이상 인구(D)	
			B/A (%)		C/B (%)		D/B (%)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2000년	2011년
전국	47,732,558	50,734,972	7.03	11.24	15.12	18.11	5.67	7.26
서울	10,311,314	10,249,679	5.42	10.19	15.60	16.53	5.91	7.06
부산	3,796,506	3,550,963	6.03	11.77	12.46	15.71	4.55	5.99
인천	2,545,769	2,801,274	5.43	8.94	14.82	18.28	5.29	7.46
대구	2,524,253	2,507,271	5.90	10.37	13.78	16.19	4.97	6.06
광주	1,371,909	1,463,464	5.64	9.32	16.37	17.86	6.52	7.12
대전	1,385,606	1,515,603	5.47	8.96	15.56	17.94	5.82	7.17
울산	1,040,225	1,135,494	4.05	7.09	15.27	16.77	5.69	6.62
경기	9,219,343	11,937,415	5.69	8.98	14.87	17.79	5.53	7.26
강원	1,554,688	1,536,448	9.26	15.18	16.87	18.94	6.15	7.96
충북	1,497,513	1,562,903	9.09	13.4	15.70	18.76	5.89	7.41
충남	1,921,604	2,101,284	11.19	14.99	15.20	19.99	5.76	7.89
전북	1,999,255	1,874,031	10.29	15.58	15.63	20.04	5.89	7.66
전남	2,130,614	1,914,339	11.94	18.61	15.55	20.35	6.16	7.91
경북	2,797,178	2,699,195	10.75	15.72	16.09	19.83	5.80	7.83
경남	3,094,413	3,308,765	8.44	12.07	13.36	19.22	4.89	7.14
제주	542,368	576,156	7.99	12.6	19.18	20.03	8.88	9.12

자료: 통계청 KOSIS,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제주지역의 경우 2000~2011년 사이에 65세 이상 은퇴자 노인인구 비율이 4.61%p 증가하였고, 80세 이상 노인은 약 0.85%p 증가,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은 0.24%p 증가하였음.
- 인구학적 측면에서 제주지역의 은퇴자 비율(특히 80세 이상 노인 층)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건강한 은퇴자들은 아직도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3.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

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특성

-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변혁기를 거쳐 온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어린 시절에는 6·25 전쟁 이후 가난과 굶주림을 함께 해와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였음.
 - 청년 시절에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화 구현에 참여하였음.
 - 청장년 시절에는 압축경제 성장기에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 중년 이후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문화적 측면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전통 의례, 부모 봉양 등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감도 가지는 경향이 큼.

- 한국사회에서 계층 상승이동에 교육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충실함. 그러나 은퇴 후 자녀에 의지하여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 생활을 하려는 의식이 강함.

<표 2-6> 以前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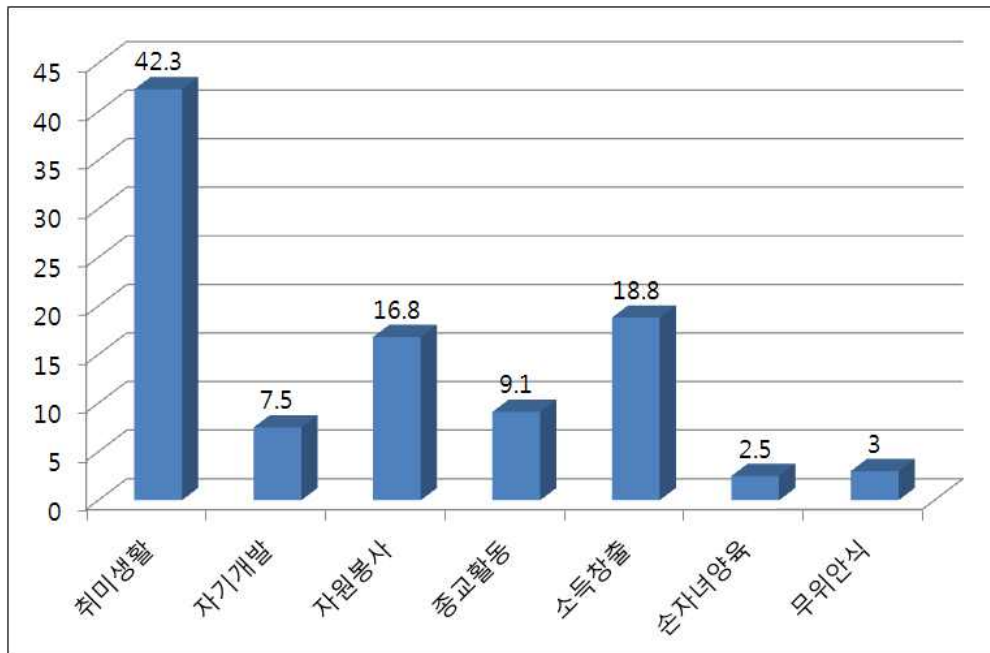
사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에 따른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수혜를 받고, 동시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체험한 세대 • 경제 성장에 기여한 세대로 일을 최우선시하며 휴일근무, 초과근무 등을 당연시
세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지출 중 부모 생활비, 자녀 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자녀 결혼비용 등도 자신이 책임질 뉘으로 인식 • 반면, 자신에 대한 배우자와 자식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덜 기대하는 편이어서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수
건강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전체 인구 대비 다소 높은 편이며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 • 특히 2009년 전후 경제위기 기간 중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체관리뿐 아니라 ‘마음관리’에도 주의할 필요성을 의식
미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 의식’에 관해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주 대비 높은 편 • 향후 소득 수준에 대해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연금 이외에 마땅한 노후 준비는 없는 실정
對사회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활동 참여에 아직도 적극적이며 사회·심리적 위로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경제·심리적 혜택 및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
은퇴 후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보유한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며 만족스러운 처분이 어려우므로 은퇴 이후에도 현 거주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문화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사회발전과 문화적 풍요를 만끽한 세대로서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문화적 박탈감으로 인한 갈등이 예상됨

자료 :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SERI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p. 5. 2010. 10.

- <표 2-6>는 베이비붐 세대가 과거의 세대와는 차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정호성 외, 2010).
 - 경제발전에 따른 다양한 경제사회적 수혜를 받았고, 동시에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체험한 세대임.
 - 부모와 자녀의 소비지출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고,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음.
 - 향후 연금 이외에 노후 준비가 없는 실정임.
 - 현재 보유한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임.
 -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붐 세대는 문화적 박탈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2010)의 사회조사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64.2%이며, 그 대신 자녀의 대학 교육비는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은 99.1%를 차지하였음.
 -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가운데 약 70%는 여전히 생활비 혹은 부양비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녀의 결혼 준비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베이비붐 세대의 대다수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0.0%) 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최대로 많음.
 - 향후 확대해야 할 복지서비스 분야들 가운데 노인돌봄서비스를 가장 우선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52.6%).
 -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주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61.6%가 ‘중간층 이상’으로 인식하였음.

- 가정 및 직장생활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65.2%로 나타남.
-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 의식을 많이 가지는 반면 정신적 건강에 해를 주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교육비를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부터 이미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서비스에 절반 이상이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더욱 향상되어야 할 것임.
-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을 보면(그림 2-2. 참고), 취미

<그림 2-2> 베이비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자료 :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4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득창출 18.8%, 자원봉사 16.8%, 그리고 종교활동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노후생활에 소득을 창출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할 것으로 여기는 비율이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에 소득보장이 안되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특성

-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의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직장파 일에 전념해 온 결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중산층 지위를 가졌으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이기도 함.
- 노동시장의 유연화 확산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혹은 정년 보장에서 조기 퇴직으로, 그리고 고용안정에서 고용불안 등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가 바로 베이비부머들임.
- 베이비붐 세대 가구는 2010년 말 현재 평균 총자산은 3억 4천만 원이며, 아울러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은 2대 8로 나타나 부동산 자산이 훨씬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KB 경영연구소, 2012: 25~31).
-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고, 총자산 규모가 적을수록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 가구 가운데 73.4%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가보유율 70.6%, 자가거주율이 63.8%로 전반적으로 자가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편임.
-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총부채 보유율은 68.9%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부채보유율 59.5%에 비해 높은 수준임. 부채는 사업자금 마련이나 거주주택 마련 등 생계밀착형 대출보유 가구가 62.7%로 대부분임.

- 부채보유 가구 가운데 순금융자산액은 -1,322만원이고, 금융대출/금융자산 비율은 126.5%로 취약하지만, 순자산액 및 총부채/총자산 비중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경희·남상호 외(2011)의 베이비붐 세대 실태조사는 주택소유, 노후소득준비 등에 대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주택소유 상태는 82.1%가 자가소유 주택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비율이 대도시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과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소유율은 높게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 다수가 월평균 필요 생활비를 200만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에 가능한 월평균 수입은 필요한 월평균 수입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가량은 노후에 부부 중 1명만이 공적연금에 의한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적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13.7%나 차지하고 있음.
 - 노후생활에서 연금과 더불어 퇴직금이 중요한 노후 소득원인데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63.8%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의 본인과 배우자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노후 저축 등에서 4종 이상 즉, 1인당 2개 이상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약 45%로 나타남.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부부의 평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는 약 2.35개로 나타남.

- 통계청(2010. 4) 사회조사에 의하면, 현재 소득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30.5%만이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동일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69.5%로 나타남.
 - 직업별로 향후 소득 증감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관리직 베이비부머 가운데 49.4%는 소득증가를 내다보았고, 나머지 기능노무직, 농어업직 그리고 서비스판매직은 70% 이상이 소득 감소를 인식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가 시작되고, 또한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산시장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그리고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줄 것임(정호성 외. 2010: 6~11).
 -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정년을 앞둔 인력은 최대 140만~150만명으로 전체 노동시장에는 큰 파급효과를 주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향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퇴직할 경우 매년 14~15만명의 퇴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연평균 퇴직 대상자가 전체 취업자의 2.7%에 그치기 때문임.
 - 그렇지만 제조업 분야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감소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베이비붐 세대의 54.3%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 집중 고용되었고, 동시에 상용근로자가 약 27.9%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통계청, 2009).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소득보전을 위해 보유 주식을 일시에 대량 처분하여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음.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에 노출될 것임.

나. 은퇴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은퇴자의 사회적 특성

- 우리나라에서 은퇴자들은 대개 노인(65세 이상)이므로 가족 내에서 역할과 기능, 사회참여, 정서·정신적 측면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임.
 - 직장 및 사회생활로부터 은퇴를 하면 가족 내에서 자녀와 부부간에 새로운 역할 적응에 힘든 기간을 겪게 됨.
 - 직장생활과 사회참여로부터 은퇴한 상황은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어 은퇴자는 사회와의 접촉과 상호작용 정도가 줄어들고 주로 집에서 혼자있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강하게 갖게 됨.
 - 은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지기 쉽고 생체 전반에 쇠퇴와 무기력 현상이 일어나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나약한 모습들을 갖게 됨.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2)는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2’ 보고서에서 은퇴준비지수를 통하여 은퇴생활의 준비 정도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였음.³⁾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음.
- 영역별 은퇴준비 인식을 보면, 은퇴 이후의 경제생활 그리고 일과 사회활동 영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나타남.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준비 정도는 50~70점 수준으로 은퇴

3) 은퇴준비지수는 은퇴 이후 삶의 영역을 여가활동, 일과 사회활동, 가족 및 친구 관계,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의 은퇴준비지수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인데 각 영역의 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100점에 가까울수록 은퇴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임(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2:10~11). 은퇴준비지수(RRI)=(은퇴여가준비지수+은퇴일준비지수+은퇴관계준비지수+은퇴주거준비지수+은퇴심리준비지수+은퇴재무준비지수+은퇴건강준비지수)/7으로 계산됨. 여기서 은퇴준비지수의 하위영역 준비지수는 각 영역별로 현재 만족도 30%, 계획 10%, 그리고 준비계획 실행 60%로 구성되어 있음.

후 삶에 대한 인식이나 계획, 실행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소득이 낮고,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혹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① 여가생활

- 은퇴자들은 종교모임과 여행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활동에서 참여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사회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의 경우에도 비은퇴자들에 비하여 은퇴자들의 참여율이 낮음.
- 은퇴와 함께 정기적 소득이 사라지고 경제적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여행이나 문화활동 등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은 은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② 일과 사회활동

- 조사에서 은퇴자들의 52%가 은퇴 후에 일을 위해 거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은퇴자들의 은퇴준비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이 끝난 후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은 59%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적 경제적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려는 강한 성향을 반영하고 있음.
- 은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은퇴 후 일과 사회활동을 위해 준비 계획을 실행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저축과 개인연금 가입 여부가 사회봉사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다시 말해서 저축이나 개인연금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은퇴자는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게 참여하고 일에 대한 준비도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 가족과 친구관계

- 은퇴자들은 은퇴 후 자녀의 교육과 결혼 의무를 다하고 자녀들을 분가시키면 부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대부분임. 그리고 이웃과 만나는 빈도가 가장 높고 반면에 직장동료와 만나는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은퇴자들에게 은퇴 전에는 주로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가 은퇴 후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됨. 전체 은퇴자의 44.5%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웃을 만난다고 함. 반면에, 은퇴자의 1/3(33.5%)은 과거의 직장동료를 거의 만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④ 주거

- 은퇴자 대부분(89.9%)이 자기 소유 집에 살고 있으며, 전세 거주자는 9.6%, 월세 거주자는 한 명도 없음. 65세 미만 예비 노인층의 자가 거주율은 91.7%로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87.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은퇴자들 가운데 65세 미만 예비노인층(24%)보다 65세 이상의 노인(32%)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음. 그리고 은퇴자들은 배우자와 사별하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혼자 살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남.

⑤ 마음의 안정

- 은퇴자 대부분은 지난 인생에서 결혼생활, 가족생활,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은퇴자들은 마음의 안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람은 극소수로 나타남.

⑥ 건강

- 은퇴자들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건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준비 실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사실상 우리사회에서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이 생활하여 건강준비를 잘 하지 못하였으며, 막상 은퇴 후 건강준비를 하려고 하니 이미 건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음.
- 오늘날 은퇴자들은 과거의 은퇴 노인생활과는 달리 역동적이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져 제3의 인생을 설계하여 생활해 가려는 측면도 있음(고승한 외. 2009: 재인용).
 - 은퇴자들은 과거의 노인들과는 달리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젊은 층 못지않게 노년기를 더욱 충실히 보내려는 의향을 가질 것임.
 - 노인들은 과거에 은퇴를 하면 바로 인생의 종말기로 인식하여 단순히 죽음을 향하여 가는 비관적 인식을 보였으나 오늘날 노인들은 보다 미래지향적 인생관을 갖고 있음.
 - 특히 노후설계를 젊은 시절부터 잘 계획하여 노년에 여가문화생활을 즐기고 자신을 위한 취미, 유행, 여행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임.
 - 과거 은퇴자들은 노인은 노인답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 은퇴자들은 나이와 젊음은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게 됨.
 - 과거 노인과는 달리 자산 처분도 자손에게 상속해 주기 보다는 자신을 위한 일(건강, 여행, 레저 등)에 더욱 많이 할애할 것임.
 - 최근 은퇴자들은 한국의 전통적 생활스타일을 고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역동적 생활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음.

<표 2-9> 과거와 미래 노인의 생활방식

분야	과거의 노인층	미래의 노인층
심신상태	병약, 어두고, 고집 센	건강, 밝고, 유연함
생활의식	보수적, 비관적인 인생관	합리적, 미래지향적 인생관
노년기의 인식	인생의 종말기	자기실현의 기회, 제 3의 인생
삶의 태도	검약, 소박, 무 취미	여유, 즐김, 개성있는 다양한 취미
독립성	자녀의 의지, 독립성 약함	배우자/사회시스템의 의지, 독립성 강함
노후설계	자녀세대에 의존	계획적인 노후설계, 독립세대유지
가치관	노인은 노인답게	나이와 젊음은 별개
레저생활	여가는 수단	여가자체의 가치부여
자산처분	자손에게 상속	자기를 위해 사용
여행행태	친목단체 등 단체여행	여유있는 부부여행
취미생활	게이트볼 등 노인끼리 교류	취미의 다양화, 다른 세대와 교류
생활스타일	한국전통식 생활	타문화 교류적 생활
유행감각	둔함, 후기 추종자	예민, 초기 수용자

자료 : 고승한 외. 「장수이미지 브랜드 구축을 위한 장수인 분포 조사」 2009. p. 14. 재인용.

2) 은퇴자의 경제적 특성

- 은퇴 이후 노동능력의 감퇴로 일정한 소득보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도 가장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떨어지게 됨.
 -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확산에 따라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이 발생할 경우 조기 은퇴하면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은퇴 이전에 연금(국민연금, 저축연금 등)이나 부동산 구입 등으로 은퇴 후 노후생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은퇴자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재취업을 희망할 것임.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은퇴자들은 자녀에게 부양을 의존하지 않은 수밖에 없음.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어서(통계청, 2011) 노인 3인 중 약 1인이 경제활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있음.
 - 비록 노인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하여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음.
 - 반면에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용돈 정도를 벌고 여유시간을 보내려는 의향도 있음.
- 은퇴자들이 은퇴 전에 은퇴 후 경제적 생활 유지를 위해서 준비를 잘하여 노후생활의 경제적 소득보장이 확실히 되어 있거나 혹은 국가차원에서 노인의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실제로 잘 되어 있으면 은퇴자들이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위한 취업에 강한 열망을 갖지 않을 것임.
- 노인인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혹은 직종을 개발하고, 아울러 노인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멘토 등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이소정, 2011).
 - 노인들은 높은 성실성과 책임감, 소임에 대한 애착, 그리고 대상자와의 공감대 형성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마련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임.
- 은퇴자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전에 가진 기술, 경험, 지식 등을 활용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주면 사회경제적 기여를 할

것임.

- 노동부(2008)의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근로자들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 모범적인 근무태도, 폭넓은 인생 보유, 고용형태 설정의 유연성, 후배의 지도 및 청년층의 모범 등을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임.
-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감소와 시장경쟁력의 하락은 잠재적 경제성장율의 둔화 혹은 하락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건강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은퇴 근로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은퇴자가 부동산(특히 주택, 토지)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고령층이 많음. 은퇴자가 은퇴 전에 자녀교육 및 결혼비, 그리고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으로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하지 못하고 다만 자가소유의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주택역모기지 제도를 실시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은퇴자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촌지역에 농지는 갖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농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제도가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주택역모기지 제도나 농지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개인저축이나 연금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은퇴자들에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

4.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효과

가. 경제적 효과

- 저출산·고령사회 시대의 도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노동시장, 자본시장과 국가재정 분야에 충격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의 확산은 앞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공급 부족이 일어나게 됨.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63만명, 그리고 2020년에는 16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한국노동연구원, 2005).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생산성 저하, 소비와 저축 및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잠재경제성장률이 떨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임.
- 또한 은퇴자의 인구 급증은 국민연금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는 연금(보험료) 지불에 비하여 지출되는 연금(급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금운용에 문제가 없지만 2036년부터 보험료 수익보다 연금지급액이 더 커져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2047년경에는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박동석 · 김대환 외, 2003).
- 그러므로 2015년부터 연금가입자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은퇴자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40년 후에는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임.
- 이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은퇴자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경제적 파급효과가 부정적 측면들도 있지만 새로운 긍정적 측면도 있음.

- 은퇴자 층이 많은 고령사회에 노인이 생산층과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을 창출함. 이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이 급격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이견직, 2007).⁴⁾
 - 노령연금 수혜자가 2018년에는 약 80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대부분 은퇴자) 가운데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커다란 노인소비 시장을 형성할 것임.
 -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최대 단일 소비 주도층을 형성하여 자동차, 영화, 주택산업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아울러 적합 제품을 선호하며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첨단제품들을 소비할 것임(이견직, 2012).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이 가져 올 파급효과를 보면, 2015년의 시장규모는 60조원, 수출은 57억불 그리고 고용은 51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음(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가 특정 지역에 유입되면 지역의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함. 예컨대,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본유입을 촉진할 계기를 마련함.
 - 특히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연금과 개인저축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여를 할 것임.

4) 고령친화산업은 14개 생산부문과 34개 전략품목이 채택되고 있음. 14개 고령친화 생산부문은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산업 분야가 있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를 참고할 것.

- 특히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농촌의 읍·면지역으로 이주해 갈 경우에 귀농하여 영농활동에 종사하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써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것임. 그래서 농수축산 분야의 생산·가공·판매업 등 부문의 사업체 조직에서 능력과 기술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나. 사회문화적 효과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특정 지역에 한 평생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여생을 산다는 결정은 쉽지 않음.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데 따른 경제적 비용(예, 주택 마련 등)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비용(예, 새 친구와 이웃사귀기, 낯설은 지역 적응 등)이 뒤따르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가 비수도권과 읍·면지역(특히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엿 볼 수 있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 인구의 총 695만 명 가운데 도시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576만 명(82.8%)이며, 반면에 농촌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119만 명으로 17.2%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2010년 수도권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337만명(48.5%)이 거주하고 있지만 최근 그 비중이 0.3%p 감소한 반면에 강원권과 충청권의 베이비붐 세대 비중은 각각 0.1%p와 0.3%p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도시지역 혹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다가 비수도권과 농촌의 읍·면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김창현·변필성, 2011).

- 조사 대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2/3 정도가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더구나 농촌이주를 가진 응답자 가운데 85.8%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이주의 목적이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 전원·휴양·여가 활동 영위를 위해서’가 6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농어촌 공동체 사업조직에의 참여 통한 일자리 구하기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15.6%, ‘농림수산물 생산·가공·판매’ 11.2%, 그리고 ‘음식점·숙박업·펜션·체험농원 경영’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이동하며 살 경우에 경제적 효과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예,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사회문화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 인구가 타 지역(특히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가면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새롭게 조성되는 효과가 창출될 것임.
- 왜냐하면 새로운 이주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 주거단지(예, 전원마을,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별장 등 개별·독립 주택, 실버주택, 등)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있음.
- 물론 일부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은 고향으로 귀향하여 새집을 신축하거나 혹은 옛 집을 리모델링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의 인구유입 효과는 교육분야 가운데 평생교육(학습) 활성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큼.
- 지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거주하게 되면 지역 문화 이해 강좌, 각종 취미·교양, 건강·장수, 취업 및 기술 직업훈련, 은퇴 후 사회적응 등의 분야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될 것임.

- 동시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도 있음.
- 초고령사회 혹은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의 거주지역에는 자연
스레 양로·요양시설, 요양전문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임.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 인구가 많이 이주하여 새로운 주거공간
을 형성하는 지역에는 의료·복지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거나 혹은
기존의 시설들이 개축·확장하게 됨.
- 이런 과정에서 건강검진과 관리, 진료·치료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사, 간호사)도 동시에 필요하고, 또한 양로·요양시설 등의 노인복지
시설에는 요양보호사 등의 사회복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임.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 인구의 집단 거주지역에는 새로운 문화
가 생겨나게 됨.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은 과거의 문화를 향취
하려는 동시에 새로운 노인문화가 태동되는 계기가 될 것임.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은 여가활동, 여행, 외식, 예술 등에 관심
을 보이면서 제 2인생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임. 이런 베
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잘 갖춘 상태에서 가능함.
- 또한 지역사회의 젊은 세대와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고, 반면에 젊은 세대는 노인세대의 돌봄에 관심을 갖기도 함. 그
리고 향후 노인돌봄서비스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음.

다.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특정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할 경우

에 그 지역은 새로운 지역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것임.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효과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지역사회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것임. 그래서 지역사회에 경제적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만일 인구가 줄어드는 읍·면 농촌지역에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가 이주해 올 경우 지역사회는 활력있는 주거공간으로 재생될 수 있음. 특히 도시지역에 생활하는 자녀와 다른 지인들이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지역사회가 역동감과 활력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임.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인구가 이주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게 되면 이들의 문화·체육 및 건강·복지생활을 유지 증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이 들어설 것임.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인구이주가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시장이 형성되어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이주해 오는 재효과를 창출할 것임.

제3장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국내외 지원정책

1. 우리나라의 지원정책

- 베이비붐 세대란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로 총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 집단(약 713만명)으로, 높은 교육수준(고졸이상 74.6%)과 고용률(75.5%) 등의 특징을 지님.
- 한국개발원(KDI, 2011)에 따르면 2011~2015년 사이에 은퇴자는 53만 명에 이를 것이고, 그 이후 2016~2020년 사이에는 은퇴자가 9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처럼 향후 1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당장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은퇴자가 1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에서 크게 나타날 것임.
-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5일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을 논의하였음.
-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 「노후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음.
 - 이는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

도하고,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노후설계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정부는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뿐만 아니라 이미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과 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돌보기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함.

가.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지원 정책

1) 여가·문화·사회참여 활동 지원

- 최근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집에서 머물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손자·손녀를 돌보는 과거의 노인문화와는 다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을 위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을 소개하고 있음. 여기서는 정경희·남상호 외(2011)의 정책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핵심 지원정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져 자긍심을 제고하여 사회성원으로 성취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2006년 2월 이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편입될 것을 고려하면 고령자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분야는 사회복지분야이고 주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단체에서 조직·운영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 노인자

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노인자원봉사 리더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전국자원봉사대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교사, 공무원, 변호사 등을 은퇴노인 자원봉사단으로 지원·육성, 전문 노인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보급, 노인 자원봉사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이 지원되고 있음.
- 고령자에게 여가·문화활동은 자아실현의 기회제공과 일상생활의 활력과 생동감을 안겨 줄 것임.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거의 없었음.
- 정부는 2000년대 되어서야 비로소 고령자를 위한 문화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을 해 오고 있음.⁵⁾ 이전까지는 정책적 지원차원에서 고령자층은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향유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음.
- 2008년 10월 7일 정부가 발표한 5대 국정지표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고령자를 위한 여가·문화활동지원 정책과제는 노인 1인 여가 플러스제도 도입, 멘토-멘티 연계프로그램 개발,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여가문화활동 콘텐츠개발 지원 등임.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의 여가·문화활동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 도서관, 노인문화진흥거점(실버문화학교) 역할의 지방문화원,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복지관 등의 문화 및 예술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음.

2)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

-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을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 맞춤형

5) 2000년대 이전 까지 고령자를 위한 문화활동 참여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피로연 행사처럼 노래자랑 수준에 머물렀음.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직 고령자 취업능력 제고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제도의 조기정착,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등을 제안하고 있음(이삼식 외, 2010).

-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 됨(표 3-1. 참고).
 -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임.
 -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재고용형은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초대 5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고령자 취업능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음.
 - 중고령자에 한해 실시하는 훈련사업으로 고령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정기간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을 촉진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임.
 - 고령자뉴스타트 프로그램은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표 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 유형

구분	내용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3년 연장(55세에서 58세), 55세의 기본급 기준으로 56세 10%, 57세 15%, 58세 20% 감액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 전체 근로자 대상: 만 50세가 피크연령으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5세로 연장 근로시간 단축: 51세-54세 20%, 55세-59세 40%, 60세이상 60% 임금감액율: 51세-54세 20%, 55세-59세 40%, 60세 이상 60%
정년 후 재고용형 임금피크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 3급이하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정년(만 55세)이 되는 해의 말 일 이후 3년간 재고용 1년차는 임금감액이 없고 2,3년차는 정년 직적 임금의 10% 감액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만 55세) 후 2년간 재고용(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심사서 frjcu 정년을 2년 연장)재고용 후 피크임금의 30% 감액

자료: 국가 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 이처럼 고령자에게 임금피크제는 직장으로부터 정상적 은퇴(퇴직)연령이 되면 근속기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액을 줄여 나가는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지 못하고 아주 극히 일부 업체에서 시행되고 있음.
-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기업체(혹은 사업체)가 지키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표 3-2> 고용연장지원 유형

구분	내용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정년연장지원금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고령자고용환경개 선 용자지원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용자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용자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용자

자료: 고용노동부

- 정부는 퇴직 혹은 은퇴 시점에 있는 고령 근로자로 하여금 일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사업장에 대한 고용연장지원을 하고 있음 (표 3-2. 참고).
-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 연장을 허용하여 재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줌.
- 사업장이 정년을 폐지하거나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년연장지원금을 지원함.

-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 환경개선 용자금을 지원해 줌.

○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지원 내용을 보면(표 3-3. 참고), 베이비 붐 세대의 고용촉진과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중

<표 3-3> 베이비붐 세대 근로연장 지원

구분	내용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감액분을 지원하여 임금 피크제 활성화 도모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근로자 2,497명 10,296 백만원 지원('12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폐지·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권’ 을 부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점진적 퇴직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근거 마련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고령자특화형 직업훈련기관 운영 추진
중고령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조건이 취약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를 운영, 취업을 지원 -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층 및 3개월이상 구직 중인 50세 이상(준)고령자 등이 지원대상임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 풀구축(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각계의 중고령층으로 구성된 전문인력풀을 구성하고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전문가를 지역별, 교육 프로그램별로 D/B화하여 유치원의 해당 프로그램과 운영과 연계하여 지원

<표 3-3 > 베이비붐 세대 근로연장 지원 (계속)

구분	내용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중소기업청)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시니어(40대 이상 경력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 등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취업 활성화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 고급연구인력 또는 경력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지원 -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체계 구축(과학기술정보 분석 및 과학관 큐레이터 활동 등)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 산업체 및 교직 퇴직자, 전문직 은퇴자 등을 커리어코치로 활용(300명이상)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중소기업청)	- 회계실무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에 애로를 겪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들과 유통업 경력자 및 행정실무경력자의 퇴직전문인력 연계사업 추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정착 (고용노동부)	- 베이비붐세대 등 중고령자 고용지원제도 홍보 및 세대간 일자리 함께하기 우수 사례 발굴·확산 - 모집·채용 관련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및 제도 홍보, 사전적 예방·홍보 실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 연령차별 판단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지방관서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적응성 강화 및 지도감독 효율화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보건복지부)	- 노후(재무·건강·여가 등) 설계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추진 - 노후준비지표 개발 및 홈페이지 등재(* 12.9)

심이 되고 있음. 이외에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베이비붐 세대 혹은 고령자층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중고령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과학 연구

분야 은퇴인력 활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정착 등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취업알선, 고용 촉진 및 고용지원을 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은퇴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지원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령층 인력을 활용하여 유아교육을 위한 전문인력풀 제도를 구성·운영 및 지원하고 있음.
- 특히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를 위해서 노후설계 프로그램 및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이 스스로 제3기 인생을 설계하여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대응 사례6)

1) 복합의료복지단지의 조성: 충남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 지역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서천군이 복합노인복지단지인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을 조성하였고, 위탁사업으로 비영리단체에 맡겨 운영해오고 있음.
 - 2003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지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기 시작하였음.
- 복지마을의 주요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 실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찜질방, 노인건강문화시설 등이며,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공동농장도 복지마을에 포함됨.

6) 김창현·변필성 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Pp. 82~87. 2011.

-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서천군 노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 노인에게도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충남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의 운영 특징은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단지 내 다른 복지시설의 운영 보조에 활용한다는 것임.
-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은 다른 지역의 노인, 은퇴자 혹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고령자용 임대주택 107세대가 모두 분양되었으며, 타 지역 노인들이 분양된 경우는 50세대로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였음.
 - 노인요양시설에는 전체 118명 가운데 24명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입소자임.
 - 요양병원에도 군내 지역 환자뿐 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도 있음.
- 이처럼 서천군의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은 국비 지원에 의해서 농촌지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있음. 특히 이러한 노인복지단지 조성은 직접 수요자인 노인들뿐 만 아니라 시설에서 일하는 젊은 층 인구의 유입 효과도 나타날 것임.
- 특히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음. 다만 종합노인복지시설이 많은 노인이나 다른 지역 수요자들의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향후 시설확충 및 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2) 귀농·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7)

(1) 충남 서천군

- 서천군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물론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자는 청·장년층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도 포함될 수 있음.
- 「서천군귀농인협의회」가 서천군의 지원하에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서천군에 이주해온 귀농인이 지역에 융화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2012년 10월 기준으로 서천군에는 353명의 귀농·귀촌인이 거주하고 있음.
-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2006년에 결성된 귀농인 소모임을 모태로 2009년 2월에 창립되었으며,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체험투어를 개최해오고 있음. 이런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예비귀농인에게 귀농·귀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사업 중 하나로서 추진되어 온, 본격적으로 귀농을 준비하고자 하는 예비귀농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인 ‘귀농인의 집’을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확보 및 수리, 영농 등을 지원하며, 각종 모임 및 친목활동을 통해 지식과

7) 귀농·귀촌에 대한 정의는 이론적 혹은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4월에 발표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나온 내용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귀농은 가족 모두가 농사일에 종사하는 전업귀농, 농사 이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겸업귀농, 귀농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과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는 농업파생귀농이 있음. 귀촌은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시로 출퇴근하거나, 주말마다 농촌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거나, 농촌에서 여유있는 전원생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여기서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여러 형태의 귀농·귀촌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읍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는 베이비붐 세대나 은퇴자는 귀촌인이 될 수 있음. 현재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지역행사에 귀농인의 참여를 장려하여 주민과의 교류 및 화합을 도모하며 귀농인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생활목공, 영농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한 도·농(도시와 농촌) 교류사업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귀농·귀촌 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서천군의 지원을 토대로 2009년 11월 군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서천군귀농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서천군귀농인협회는 귀농·귀촌을 한 후에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지식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연계 하고 있으며, 예비귀농인이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에 비교적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과 같은 임시거처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귀농인은 임시 체류기간 동안 다양한 주민과 접촉하면서 귀농여부를 결정하여 농촌에 보다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음.

(2) 전북 진안군

- 전북 진안군은 2006년부터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휴양, 여가 활동 목적 외의 귀농·귀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도시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의 준비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음.
-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체재형 가족농원을 예비귀농·귀촌인이 장기간 체류하며 준비할 수 있는

임시 거처로 활용하고 있음.

- 2010년 10월 기준으로 진안군의 귀농·귀촌인은 1,455명에 이르고 있음.
- 입차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받거나, 텃밭을 활용하여 영농 체험을 하고 도시에서 축적한 지식 및 경험을 살려 비농업 분야에 취업할 수도 있음.
- 도시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중시하며, 이주 후 농업 외의 분야에서도 근로 및 사업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배제하되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현금지원에 따른 기존 주민과의 갈등 및 역차별 문제를 방지하고 있음.

다. 국내 사례로부터 시사점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을 포함한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성공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함.
- 지자체가 중앙 정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벗어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요구됨.
- 충남 서천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기관은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정책적 지원(특히 각종 재정지원)만 하고, 운영은 민간 부문(예, 서천군귀농인협의회)에 위탁하는 방식이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에 더욱 실효성이 클 것임.
-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통하여 정책 집행의 결과로써 귀농·귀촌인 증가에 전념하지 않고 정책 목표가 귀농·귀촌 과정에 주안

점을 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함.

- 도시거주 청장년층을 포함한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귀농·귀촌을 결정하기 이전에 예비귀농·귀촌인으로 하여금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체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귀농·귀촌을 결정하도록 함.
- 귀농·귀촌인이 성공적 정착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상호이해, 적응, 화합, 그리고 친목을 다져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류와 친목의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함.
- 영농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귀농·귀촌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돌봄,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임.
- 귀농·귀촌인이 도시민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생산 농산물 판로 확장 사업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임.

2. 외국의 지원정책

가. 외국의 베이비붐 세대·은퇴자 지원정책

1) 미국

-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약 19년(1946~1964년생 출생)간에 걸쳐 출생한 연령층임.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는 2008년에 최고령자가 62세에 달했으며 총 7,730만명으로 총인구의 25.4%를 차지함(정호성 외. 2010).
- 최고령인 1946년생이 2011년 공적연금 수급연령인 65세에 도달하

면 은퇴를 시작함.

- 미국 CEPR(2009)의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순자산은 2004년 635,700달러에서 2009년 408,500 달러로 36% 감소하였음(이판용, 2011).
- 2010년 12월27일 기준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06년 이후 33% 하락함.
 - 주택 시가보다 주택 모기지가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안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1,10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하는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세대 혹은 노인층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대상층이 됨.
- 고령자 대책으로 미국의 은퇴연금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연금의 공적연금, 노동자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연금, 개인은퇴계좌(IRA)를 중심으로 한 개인연금 등이 있음.
- 미국 정부는 1938년 국가자원위원회(National Resources Committee)를 통해 연금부담 등의 이유로 고령자의 근로보장과 조기은퇴의 방지를 일찍이 제도적 차원에서 강조하였음.

① 노인복지정책 변화

-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은퇴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그리고 건강보험 등을 최근까지 법 제정 및 수정을 통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오고 있음(표 3-4. 참고).
 -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은퇴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물론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됨.
 - 빈곤노인들을 위해 연방정부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표 3-4> 미국의 노인복지에 관련된 정책현황

노인복지정책	내 용
노령유족장애보험 (OASDI)	OASI: 은퇴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 DI: 장애근로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장애보험프로그램 OASDI: 노령유족장애보험프로그램(사회보장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을 포함
보충적 소득보장 (SSI)	소득이 공식적 빈곤선 이하인 노인 및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빈곤선의 75-90%에 달하는 소득을 보장해줌(2002년에 약 6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소득보장 급여지급)
노인복지법 (OAA)	1965년 노인들의 웰빙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어 40여년에 걸쳐 미국 연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반을 제공 ①접근서비스, ②재가서비스, ③시니어센터 프로그램, ④영양 프로그램, ⑤법적 지원서비스, ⑥기타 서비스
노인의료보험 (Medicare)	병원보험: 사회보장에 자격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65세에 도달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보충적 의료보험: 병원보험에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이며 미국 내에 살고 있다면 선택할 수 있음
의료부조 (Medicaid)	모든 연령층의 저소득 미국인이 그 대상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의 재원조달을 함

자료: 남기민. “미국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발달과 전망.” 「한국사회과학 연구」 제30집 1호, 2008. 재인용

-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울러 노인 건강 증진과 치유를 위해 노인의료보험 및 의료부조제도를 확립하였음.
-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20세기 들면서 점진적으로 발달해 왔으며 ‘사회보장법’ ‘미국노인복지법’ 등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대되어 왔음(표 3-5. 참고).
- 1965년 ‘미국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음.⁸⁾

8) 박영란 외,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11.9

<표 3-5> 미국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도의 발전 과정

시기	내용
1920	공무원 퇴직법 제정으로 공무원 퇴직제도 도입
1935	사회보장법 제정 노령연금 제도 도입
1937	철도청 공무원과 미망인 퇴직 제도 도입
1950	제1회 전국노인복지대회 개최
1952	사회보장법 근거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의 연방 기금 배정
1958	백악관 노인복지회의 개최를 위한 법률 연방의회 상정
1960	사회보장법이 50세의 연령 제한 철폐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백악관 노인복지회의 개최 • 사회보장법에서 남성의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춤
1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노인복지법 제정 • 노인복지청 신설 •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 노인의료보험신설(Medicare) •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신설(Medicaid)
1967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1969	미국노인복지법 개정 및 퇴직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1972	영양급식 프로그램 신설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노인복지사무소 신설 • 5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지역봉사고용프로그램 신설 • 고용 및 훈련 지원법 제정
1974	농촌 노인 특별 지원(농촌 및 지역 주거 지원법)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신설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사업 강화: 허약노인 대상 재가복지 서비스,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특수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서비스, 노인 학대 예방, 저소득층 노인 대상 아웃리치 활동 강화 • 취약 계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 강조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고령자고용차별금지법 제정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비용 관련법 제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베이비부머가 최초로 65세가 됨 • Affordable Care Act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사무소에서 지역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료: 박영란 외.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11. 9. 재인용.

- 특히 이법의 일부분인 ‘지역서비스기회지원법(The Community Service Senior Opportunities Act)’은 고령자들을 위한 고용기회 제공의 근거가 되고 있음.
- 1967년에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직종에서 65세 이전의 강제 퇴직을 금지하였음.
- 이외에도 1960년대에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의료보험 신설, 은퇴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이 생겼음.
- 1970년대 들어오면서 지역노인복지사무소 개설, 고용 및 훈련지원, 농촌노인 특별지원 등이 이루어졌음.
- 특히 1978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령을 70세로 연장하였으며, 1986년 ‘고령자보호법’을 통해 정년제를 폐지하였음(정호성 외, 2010).
- 1980년대에는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6대 사업(재가복지, 장기요양, 특수욕구, 보건교육 건강증진, 노인학대예방 등)이 추진·지원받아 오고 있음.
- 1990년에는 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고령자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고령자 혹은 은퇴 노인들이 일하는데 차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게 됨.
- 2010년에 요양비용 관련 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2011년에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생활지원을 위한 법을 마련하였음.
- 미국은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특별 조치는 없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소득 및 의료보장 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제도와 틀 안에서 노후설계를 하고 있음.
- 특히 미국에서는 노인문제와 관련된 사회이슈의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백악관노인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를 196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음.

② 노후생활 지원과 재취업 정책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을 위해서 고용연장 혹은 재취업은 중요한 정책 과제임. 미국은 1973년에 고령자의 고용 및 훈련 지원법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 1990년에는 고령자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노인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 또한 1969년에는 은퇴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도 제정함. 이외에 1973년에 5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지역봉사고용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음.
- 미국에서는 역동적이고 활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오고 있음(표 3-6. 참고).
 - 은퇴자의 경륜과 사회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특히 자원봉사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음.
 - 고령자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여행과 학습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고령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고령자를 위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미국에서 노후생활의 활동적 지원체제는 단순히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사회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표 3-6> 미국의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 프로그램 사례

구 분	내 용
자원봉사 및 시민활동 (Civic Eng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은퇴자의 경험과 사회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 약 50만 명의 55세 이상 봉사자들이 65,000개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양조부모 프로그램, 소외계층 동반자 프로그램, 퇴직자봉사프로그램 등이 있음
문화활동지원 센터 (Shepherd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봉사조직으로 고령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활동을 하도록 조직화함 평생교육, 건강관리 서비스 및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함
제3기 인생대학 (University of the Third Age(U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2년 프랑스에서 노인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된 개념임 미국에서는 평생교육원과 퇴직자를 위한 학습원이 발달하였음
여행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 (Explorit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5년 Elderhostel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학습과 여행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2009년 Exploritas로 이름이 변경하였고, 회원가입 자격을 55세로 낮추었음 미국 50개 주와 90개 국가에서 약 8,000개의 학습과 결합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16만명 정도가 참여함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OA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의 평생학습 기관으로 50세 이상의 미국인들이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중고령자들이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함 미국 27개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및 커뮤니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고령자 정보교육 프로그램 (Senior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대상 정보화 교육 기관임 고령자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1986년 이후 약 100만 명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였음

자료: 박영란 외,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11. 9. 재인용.

<표 3-7> 미국의 고령자 재취업 및 사회참여 사례

기관	세부사업명	대상자	내용	최종취업 형태
시민활동 지원부 (Civic Adventure)	Encore Fellows	고령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밸리지역 실험프로그램 • 공공서비스와 중고령층 경력자 연결 	재취업
	Local Organization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에 대한 준비와 직업소개, 삶에 대한 계획과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동료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 세션 	재취업
	Next chapter	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보람된 일을 원하는 퇴직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 진행 	자원봉사
실천지원단 (Experience CORPS)		50세 이상 고령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분야 • 퇴직자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연결 •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돕는 역할, 아이들의 읽기 쓰기의 기초 교육 등 봉사활동 	자원봉사
AARP Foundation SCSEP	Experience Work의 프로그램 전국노인봉사단의 프로그램	5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 고용 전망 낮은 실업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프로그램 • 고령자 대상 고용과 직업훈련 • 최저생계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전액 국고 지원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인력자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교육 재취업
Score in NYC		전문직 (현장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업인 미국 내 작은 기업을 상담 • 기업과의 일대일 상담을 무료로 제공 • 세미나와 워크숍을 낮은 비용으로 제공 	자원봉사

자료: 이소정 외,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적수요조사」 보건복지 정책보고서 2011. 재정리.

○ 따라서 고령자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재취업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2) 일본

- 2차대전 이후 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부머를 ‘단카이’ 세대로 지칭함. 단카이 세대는 680만명 정도로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단카이 세대의 1947년생이 2007년 60세를 맞아 집단 은퇴를 시작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2007년 문제(쇼크)’⁹⁾라는 신조어가 생겼음.
 - 단카이 세대의 총 개인 금융자산은 약 130조엔으로 전체 개인 금융 자산의 약 12.7%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 총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와 전후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기에 도달하면서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손은경, 2012).
 - 고령인구는 2005년 2,576만 명에서 2040년에 3,853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인구 가운데 고령인구의 비중은 2005년 20%에서 2055년 40%에 달할 전망이다.
- 일본 고령자 가계의 주된 노후자금인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 등 공적연금, 그리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으로 구분됨(이판용, 2011).

① 고령자 고용정책

- 일본정부의 고령자 고용대책은 법률제도와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창출 방안으로 고령자 재고용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971년 ‘중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중고령

9)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재정의 부담 증가, 소비구조의 변화 등)를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됨.

자가 재취업 시 사업주에 대해 ‘계속고용 정착 촉진 조성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령자가 창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 2004년에는 1995년에 제정된 연금개시 연령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재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고령 연령자의 안정적인 고용 확보를 위해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었으며 고연령자의 재취직을 촉진하는 조치가 정해졌음(김명중, 2005).
 - 65세까지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의 의무화(2005년4월1일부터 시행)로 인해 65세 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령자의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정년규정의 폐지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함.
 - 해고 등에 의한 고연령자의 이직예정자에 대한 구직활동지원서의 작성 및 교부의 의무화(2004년 12월1일부터 시행)는 이직하게된 고령자(45이상 65세 미만)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고령자의 직무경력과 직업능력 등 경력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과 재취업 직원조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해야함.
 -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시 연령제한을 하는 경우에 이유 제시 의무화(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사업주가 상한연령(65세미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함.
 - 실버인재센터 등이 실시하는 일반노동자 파견사업의 수속 특례(2004년 12월1일부터 시행)는 실버인재센터의 신청에 의한 임시적이며 단기적 취업에 관해서는 일반노동자 파견 사업을 실시하도록 허락하는 조치임.
- 정책목표 집단을 기준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은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 취업취약계층 등 대상을 보다 폭넓게 정의

한 가운데 고령자를 지원하는 정책, 연령차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김준영, 2011).

- 또한 지원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지원정책으로 고령자 노동수요를 촉진하는 ‘노동수요 지향형(기업지원형)’ 정책과, 고령근로자의 취업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노동공급 지향형(인적자본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는 정책목표집단 기준으로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며, 지원방향 기준으로는 ‘노동수요 지향형(기업지원형)’이라고 할 수 있음
 -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는 정년연령에 도달한 고령자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의무화하여 고령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임.
 - 동 조치의 실시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수 있는 계층(청년층)에 대한 배려는 고려되지 않음.
- 2006년 4월부터 실시된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대부분의 일본 기업에 도입되었음.
 -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6월 기준, 51인 이상 기업(93,928사) 중에서 고용확보 조치의 도입을 완료한 기업의 비중은 97.6%에 달함.
 - 대기업 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도 실시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
- 1994년에는 노동법을 개정하여 기업이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였음.

<표 3-8> 일본의 고용관련 지원정책 사례

구 분	내 용
고령자고용관계조성금(지원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 연령자 시행 고용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자를 일정기간 취업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 조성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특정 취직 곤란자 고용 개발 조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연령자(60세이상 65세 미만)등 취직 곤란자를 공공직업 안정소 또는 유료·무료 직업 소개사업자의 소개에 의해 고용하는 사업주 에 대해 임금 일부를 조성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고연령자 고용 개발 특별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의 이직자를 공공직업 안정소 또는 유료·무료 직업 소개사업자의 소개에 의해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 일부를 조성 ●고연령자 등 공동 취업 기회 창출 조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세 이상의 고연령자 등 3명 이상이 직업 경험을 살려 법인을 설립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속적 고용, 취업 기회를 창출하는 경우에 사업 개시와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조성 ●정년 인상 등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의 정년의 인상, 정년 규정의 폐지 또는 70세 이상까지의 계속 고용 등 안정적인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이나 근무시간의 다양화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65세 이상까지 일할수 있는 여건조성, 처우개선 등의 대안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조성
고령자 등의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연령자 고용에 정통한 경영 노무 컨설턴트, 중소기업 진단사, 사회보건노무사, 전문적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령자 고용 어드바이저로 인정해서 전국에 배치 ●어드바이저가 방문하여 조건 정비 저해요인 발견, 조인, 설계, 인사처우 제도 등 기획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보급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기업 소개 ●고령자 고용 추진을 위한 실천적 수법 개발 ●에이프리지로 기업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순서 ●기업과의 공동연구

자료: 박영란 외,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11. 9. 재인용.

- 2004년에는 재차 법 개정을 통해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정년폐지의 3가지 조치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업의 70% 이상이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재고용제도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정경희 외, 2011. 재인용).
- 따라서 일본의 경우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재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래서 고령자 혹은 은퇴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였음.

② 일본의 고령자 재취업 및 사회참여

- 일본은 고령자의 재취업에 상당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음(표 3-9. 참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기업, 대학 및 시민단체의 은퇴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니어 은퇴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통해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동경시, 교토시)에서는 고령자를 위해서 경력설계, 취업, 그리고 은퇴준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전국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시직·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표 3-9> 일본의 고령자 재취업 및 사회참여 사례

기관	세부 사업명	대상자	내용	최종 취업 형태
커뮤니티 비즈니스 NPO 법인 심포니	삶의 보람 일자리 서포트 센터	40-6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사회경험과 경력,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들이 비영리 단체에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NPO를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지역사회 비즈니스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진행하고 있음 	재취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아소시민활동서포트센터’		시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대기업 또는 대학, 시민단체의 퇴직자 출신 •전문성을 토대로 각각의 역할을 맡음 	자원봉사
동경시 교통센터 (자치단체)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고용촉진 •경력설계, 취업, 퇴직준비에 대한 서비스 제공 •청년, 중년, 장년 등의 3개 코스 운영 	재취업
전국 실버 인재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자 고용촉진법에 법적성격 규정 •노동을 임시적·단기적인 일로 제한하여 4대 보험 적용에서 제외 	재취업

자료: 이소정 외,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적수요조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1. 재정리.

3)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자에 대한 한·미·일 대응 비교

-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고령자(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포함)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각 국가마다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르지만 고령자 삶의 질적 향상은 공통사항임.
-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자(준고령자, 은퇴자 포함)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가 보다 앞서 법과 제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표 3-10. 참고).

<표 3-10> 한·미·일 대응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고령자 노동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고용창출에 집중 -고령자 고용촉진법(1991년) 55-64세 중고령자 미포함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과 직업교육에 집중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대상 사회보장제도 확립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응 •일자리 창출은 정부개입으로 간주 최대한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연장 중심 정책 -65세 정년 의무화 (2004년,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 •중고령자 재취업 및 고용 지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중고령자 (55-64세)포함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 촉진 -실버인재센터 등 법제화(1986)
정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 60세 노력 의무화 -기업 제재 조항 없음 •연령차별 금지(2009년) -모집, 채용에 연령차별금지 -퇴직, 해고 등의 기업 의무조항은 2010년 실시 -정년 등 차별금지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차별금지법 실시 (1967년) -강제정년연령을 65세로 규정 •연령차별금지법 개정 (1978년) -강제정년연령을 70세로 규정 •연령차별금지법 개정 (1986년) -강제정년 규정 폐지 •조직퇴직 장려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까지 정년연장 -60세 미만 정년금지/의무화(1994년) •65세 계속고용제도 도입 -지방경제단체와 연계 -고령자 대상 직장개선 원조
고용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에 집중 -공익, 교육, 복지 등 공공분야 16만개 창출 (2009년) •민간분야는 부대경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고령자 중심 고용지원 -노인 지역봉사 고용 프로그램: 5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의 지역/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재고용 제도에 중점 •실버인재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고령자 사업단과 협동조합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관 촉진

<표 3-10> 한·미·일 대응 비교 (계속)

구분	한국	미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성 파견(주례사, 경비원 등)이나 장형(택배, 세차 등) 업체의 지원금 제공 -노인 창업에 지원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중고령자 창업지원 -3명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창업지원 조치
고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고용률 제도 운영 -300인 이상 사업장 3%이상 55세 이상의 고용자 고용 노력 ●재정적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조정지원 대안 프로그램 - 50세 이상 실직자 취업 시, 과거 직장과 현 직장의 임금 차이액 50%를 1년에 1,000 달러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령자 재취직 원조 -은퇴자의 재고용제도 운영 -선택적 재취업제도 운영 ●이직 중고령자 재취직 사업주에 대한 지원 -계속고용정책촉진 조성금 지원
연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재정상황 개선 -연금보험료 유지, 지급률은 감소 -연기연금제도 운영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연기 ●출산제도와 연계 -출산 크리딧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생활 안정 추구, 사회적 소득재분배 추구, 조기 수령억제 -국민 노령연금 강제 가입 -고령자 의료보험 매디케어 -노동시장참여를 위해 연금수급연령 상승과 조기수급자 벌칙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승 -후생연금 65세로 상승 ●연금 적립액 상향조정 및 연금 수령액 감소 -후생보험 보험료를 인상 -국민연금 매년 인상 -후생연금 수령액 감소 추진

자료: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VIP REPORT」 통권 407호,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및 수정·보완.

-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55-64세 중고령자의 재취업, 미국은 저소득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음.
-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모두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용유지, 일본과 미국은 고용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지 않는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지원도 선별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독일

- 독일은 193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1972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2008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이 도입된 국가이며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위험을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대응하는 국가임.
-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장 큰 축은 연금제도임.
- 연금보험은 독일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으로 퇴직 후 적절한 생활 수준의 유지를 목적으로 1887년 도입되었음.
- 독일 정부는 ‘Initiative 50 Plus’ 라는 고령인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0%까지 높이고, 2012년까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달성하고자 하였음(정경희 외, 2011).

- 이러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자들이 기업에 오래 남아 지금까지 축적된 기업의 특수 기술과 직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음.
- 독일의 고령자 사회참여 활동은 크게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등으로 나누어짐.
- 독일은 1970년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 은퇴 정책을 추진하여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조정하였으며, 58세부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음.
- 1986년 말 ‘성장 및 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도권 학교교육의 기한과 범위를 확대하며, 노년기의 직업교육과 사회교육의 비용 및 교육기간 중의 복지 확대에 관한 규율 내용을 법제화하였음.
- 독일은 노동시장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근로자들의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조기퇴직제도를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하지 않고 있음.
 - 2006년 부터는 노인의 실업보험을 대폭 삭감하여, 노년기 취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무자제도¹⁰⁾의 혜택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노인이 정규 근로자로 일하도록 하고 있음.
 - 연령에 따른 노동제한제를 철폐하며, 기업들이 비상시 노인고용자를 우선순위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 노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설립과 노인일자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였음.

10) 퇴직시기가 가까워진 노인이 법적 노동시간보다 적게 일하면서 임금을 받는 제도

5) 핀란드

- 핀란드는 고령자의 고용 증진보다는 고령자의 근로능력을 높여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국가프로젝트’의 사업에는 기초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고령자를 위한 직업 기술과 맞춤형 훈련뿐 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연령관리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작업장 보건 및 안전개선, 새로운 재활방법 도입 등 노동자의 작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음.
- 기업들에게 맞춤형 개발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업들이 좋은 작업장 관행과 모델을 만들어 내고 고령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훈련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음(정경희 외, 2011. 재인용).

3. 제주의 지원정책과 한계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제주지역으로 이주해 올 경우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까지 귀농·귀촌 지원정책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음.
- 그러나 최근에 제주로 전입하는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짐에 따라 제주로의 유입인구¹¹⁾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제주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주민들의 불편 해소

11) 2011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제주로 전입한 인구는 2만3415명으로 타 시도로 나간 전출인구 1만 8757명보다 4658명(24.8%)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제외한 순이동 인구가 늘면서 제주도 전체인구는 58만3293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0.8% 증가하였음. 이처럼 제주도에 유입인구가 증가한 원인으로 각종 관광개발사업, 기업유치, 베이비붐 세대 및 은퇴자의 귀농·귀촌 등으로 지적되고 있음(경향신문, 2012. 12. 10)

와 성공적 정착을 돕고자 계획하고 있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혹은 다른 연령층 인구가 제주로 이주해 올 경우 지원해 주는 정책이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임. 귀농·귀촌 지원정책 추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도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자 혹은 제주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타 시·도에 거주하였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지역으로 귀농·귀촌한 경우가 없지 않음. 물론 젊은 청장년층도 제주에 귀농·귀촌하여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음.
- 강승진·고상환(2011)의 제주지역의 귀농·귀촌인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귀농·귀촌인 51명 가운데 제주 출신이 26명(51.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9명(17.6%), 경기 5명(9.8%), 강원 4명(7.8%), 전북·경북 각각 2명(3.9%) 전남·대구·광주 각각 1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 가운데 제주 출신이 아닌 타 도시 출신자는 모두 25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로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지역이 17명(3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13명(25.5%), 제주 13명(25.5%), 광주 부산 각각 2명(3.9%), 인천·청주·춘천·충북 각각 1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제주로 귀농·귀촌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58.8%)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로의 귀농·귀촌한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가 24명(47.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17명(33.3%), 60세 이상 6명(11.8%), 그리고 40세 미만이 4명(7.8%)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장년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제주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어져 각각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업무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표 3-10. 참고).

<표 3-11> 귀농·귀촌 정착지원 개요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내용
농업창업 (융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신용보증(90%까지) ※1천호: 세대당 2억원 까지 융자
주택구입·신축 (융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교육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 -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주택마련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200호: 세대당 4천만 원 한도

<표 3-11> 귀농·귀촌 정착지원 개요 (계속)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내용
주택수리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 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기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3천호: 세대당 5백만 원 한도
귀농농업 인턴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 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 시 인건비 보조 ※750명: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국고 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사업자금지원 지침」 2012.

-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은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실습지원은 2개소에서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 기간 동안의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내부자료, 2012)
 - 제주지역에서는 2010~2012년 8월 기준으로 귀농 창업자금이 47세대에 52억3천3백만원 지원되었고, 주택구입자금은 15세대에 5억5천2백만원, 그리고 2010년까지 빈집수리비로 24세대 1억원 그리고 농업인턴사업으로 10농가에 7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음.¹²⁾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청 및 농협에서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주간(3~5월)과 하반기 야간(7~8월)으로 나누어 귀농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2012년도에는 주간(100시간)에 145명, 야간(30시간)에 176명의 수강생이 귀농교육을 받음.

12) 빈집수리비 및 농업인턴 지원은 2010년까지 추진되어 중단된 일몰 사업임.

- 서귀포시청은 2012년도부터 귀농·귀촌교육(기본과정, 심화과정, 창업연계 과정) 과정을 개설하여 380시간에 288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았음.
- 귀농·귀촌 정착지원 멘토링단 운영(전화, 이 메일서비스, 현장방문 등)과 고충상담 제도 운영(매월 2회 귀농·귀촌인 가정 방문)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에 힘쓰고 있음.
- 농협은 2011년에 1개 과정에 35명, 2012년도 1개 과정에 66명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실시하였음.
- 또한 2012년부터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귀농자를 중심으로 한 ‘영농지원프로그램 기초교육’으로 감귤재배기술과 발작물재배기술에 대한 기초과정을 교육하고 있음.
- 한 달에 한두 번씩 농가에 방문하여 시기마다 이뤄지는 과정들을 몸소 배우는 과정임.
- 2012년도에 감귤재배 기초과정에 172명, 발작물 기초과정에 61명이 참여하였음.
- 서귀포시청에서는 2012년 올해부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으며, 기본과정은 3월부터 5월에 진행되며 귀농의 기본을 배우고,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화과정이 하반기에 진행됨.
- 귀농·귀촌 창업 자금으로 2억원, 주택구입자금으로 호당 4천만원이 지급됨.
-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으로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 1인당 월60만원 한도에서 월 보수의 50%까지 최대 10개월간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기관별 귀농정보지원센터는 행정시 두 곳과 농업기술원 다섯 개

소, 농협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음.

- 농업기술원(5개소) : 농업기술원, 제주시센터, 서귀포센터, 동부센터, 서부센터
 - 행정시(2개소) : 제주시, 서귀포시
 - 농협(3개소) : 제주농협지역본부, 제주시지부, 서귀포시지부
-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만간 「귀농인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지역에 귀농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

나. 제주지역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지원정책의 한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의 제주이주를 촉진시키는 대표적 지원 정책이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음.
-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2010년부터 시작되었고, 아울러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도 2009년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룸.
 -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자금지원이 대부분 용자여서 만일 귀농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출금(특히 창업자금, 주택구입 등)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괄 부서가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도 농업기술원, 서귀포시청, 농협이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도 자치행정과는 제주 이주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
- 이처럼 제주로 유입되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지원을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자녀교육, 사회참여, 생활적응 등)에서도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총괄부서가 필요함.
- 귀농·귀촌을 지원해 주는 기관들 간에 네트워킹이 미흡함. 행정 기관 내에서도 협력체제가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더구나 민간 기구(예, 귀농협의회)와 네트워킹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함.
- 다만 행정에서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해나고 있음.
- 따라서 귀농·귀촌과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특히 농업기술, 농촌생활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다른 프로그램 운영은 적극적이지 못함.

제4장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1. 베이비붐 세대 조사 결과

가. 조사설계

- 본 연구는 타 시·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기간 출생) 혹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여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를 제주로 이주시켜 인구증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타 시·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제주지역에 이미 정착하여 생활하는 제주이주 은퇴자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음.
- 베이비붐 세대의 조사대상 지역은 전국의 타· 시도이고, 은퇴자의 조사대상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행정구역에 해당됨.
- 베이비붐의 인구유입과 관련한 다양한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타시·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사회조사센터에 의해서 2012년 9월 8일 ~ 10월 8일 기간에 이루어졌음.

나. 베이비붐 세대 대상 조사 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Administrative questionnaire)가 사용되었으며 면접조사 경험이 많은 면접조사원이 자료를 수집하였음.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현재 타 시·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그러나 1:1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조사대상 베이비부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표본 선정은 전국의 타 시·도에 분포해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조사기간, 조사비용 그리고 조사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임의 표집을 하였음.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임의 무작위 표집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지역을 제주국제공항으로 삼았음.
- 제주국제공항은 전국의 관광객 혹은 방문객들이 제주를 여행한 후 출발 이전에 모두 집합하는 장소로서 출발을 기다리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혹은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임. 다양한 연령층 관광객 혹은 방문객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를 임의 표출할 수 있는 적격지로 판단하여 조사대상자를 제주국제공항에서 표집하게 됨.
- 조사면접 대상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베이비붐 세대 여부, 성별, 연령 등이 고려되어 무작위로 표집(random sampling)된 최종 조사대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면접조사 대상자가 2명이 추가 조사되어 302명이 본 조사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로 사용됨.
- 최종 분석은 빈도분석에 의한 기술적 설명(Descriptive explanation) 방식을 취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적 특성, 타 지역 거주이향, 제주지역 거주이향, 거주이향 결정자에 대한 지원유형 등의 변인이 포함되었음.

다. 빈도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체 응답자 302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77명(58.6%), 여성 125명(41.4%)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별로는 대학 졸(중퇴 포함) 148명(49.0%), 고등학교 졸 110명(36.4%), 중학교 졸 25명(8.3%), 대학원 수료 이상 16명(5.3%), 초등학교 졸 이하 3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졸 졸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 50세~만 55세 160명(53.0%), 만 56세~만 57세 134명(44.4%), 그리고 만 49세 8명(2.6%)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 59명(19.5%), 서울특별시 58명(19.2%),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각각 27명(8.9%), 인천광역시 19명(6.3%), 대전광역시 18명(6.0%),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13명(4.3%), 울산광역시, 충청북도가 각각 12명(4.0%), 경상남도 11명(3.6%), 강원도 10명(3.3%), 충청남도 9명(3.0%), 전라북도 8명(2.6%), 경상북도 5명(1.7%), 외국 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별로는 300만원~400만원 미만 86명(28.5%), 400만원~500만원 미만 82명(27.2%), 200만원~300만원 미만 51명(16.9%), 500만원~600만원 미만 46명(15.2%), 600만원 이상 24명(7.9%), 100만원~200만원 미만 11명(3.6%), 100만원 미만 2명(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7	58.6
	여성	125	41.4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	1.0
	중학교 졸업	25	8.3
	고등학교 졸업	110	36.4
	대학 졸업(중퇴 포함)	148	49.0
	대학원 수료 이상	16	5.3
연령	만 49세	8	2.6
	만 50세~만 55세	160	53.0
	만 56세 ~ 만 57세	134	44.4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58	19.2
	부산광역시	27	8.9
	대구광역시	13	4.3
	인천광역시	19	6.3
	광주광역시	27	8.9
	대전광역시	18	6.0
	울산광역시	12	4.0
	경기도	59	19.5
	강원도	10	3.3
	충청북도	12	4.0
	충청남도	9	3.0
	경상북도	5	1.7
	경상남도	11	3.6
	전라북도	8	2.6
	전라남도	13	4.3
	외국	1	0.3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 (계속)

구분		빈도(명)	비율(%)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2	0.7
	100만원~200만원 미만	11	3.6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16.9
	300만원~400만원 미만	86	28.5
	400만원~500만원 미만	82	27.2
	500만원~600만원 미만	46	15.2
	600만원 이상	24	7.9
합 계		302	100.0

2) 현재 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거주지역

- 현재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여부를 보면(표 4-2. 참고), 현재 미퇴직자 187명(61.9%), 현재 퇴직자 115명(38.1%)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2/3 이상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 현재 퇴직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퇴직자	115	38.1
현재 미퇴직자	187	61.9
합 계	302	100.0

- 조사응답자가 퇴직하여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할 의향에 대해서는 ‘아니오’ 59명(51.3%), ‘예’ 56명(48.7%)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표 4-3. 참고). 따라서 은퇴 베이비부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갈 의향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표 4-3> 다른 지역에 거주할 의향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예	56	48.7
아니오	59	51.3
합 계	115	100.0

- 조사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특별한 이유를 보면(표 4-4. 참고), 먼저 ‘현재의 거주 지역은 너무나 복잡하고 공기가 좋지 않아서’ 15명(27.3%)으로 가장 많고, ‘귀농·귀촌하여 농사지으면서

<표 4-4>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할 특별한 이유

구 분	빈도(명)	비율(%)
현재의 거주 지역은 너무나 복잡하고 공기가 좋지 않아서	15	27.3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4	7.3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6	10.9
옛날 친구나 친지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9	16.4
건강하게 더 오래살기 위해서	10	18.2
귀농/귀촌하여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어서	11	20.0
합 계	55	100.0

살고 싶어서’ 11명(20%), ‘건강하게 더 오래살기 위해서’ 10명(18.2%), ‘옛날 친구나 친지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9명(16.4%),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6명(10.9%),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4명(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살고 싶은 지역으로는 ‘농·산촌 지역’ 28명(26.7%), ‘도시 근교 농촌지역’ 27명(25.7%), ‘농·어촌 지역’ 19명(18.1%), ‘관광·휴양 지역’ 15명(14.3%), ‘중·소도시 지역’

11명(10.5%), ‘대도시 지역’ 4명(3.8%), ‘외국’ 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5. 참고).

<표 4-5>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살고 싶은 지역(다중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도시 근교 농촌지역	27	25.7
농/산촌 지역	28	26.7
농/어촌 지역	19	18.1
대도시 지역	4	3.8
중/소도시 지역	11	10.5
관광/휴양 지역	15	14.3
외국	1	1.0
합 계	105	100.0

- 조사응답자가 ‘향후 제주로 이주할 의향에 대해서 없다’ 59명(52.7%), ‘있다’ 53명(47.3%)으로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표 4-6. 참고).

<표 4-6> 제주지역으로 이주할 의향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있다	53명	47.3
없다	59명	52.7
합 계	112명	100.0

- 제주에 거주할 의향 정도로는 ‘여건이 마련되면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는 응답자가 15명(2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직은 조금 생각하는 중이다’ 14명(26.4%), ‘꼭 제주에서 살고 싶다’ 13명(24.5%), ‘가능한 한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11명(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7. 참고).

<표 4-7> 제주에서 거주할 의향 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꼭 제주에서 살고 싶다	13	24.5
가능한 한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11	20.8
여건이 마련되면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15	28.3
아직은 조금 생각하는 중이다	14	26.4
합 계	53	100.0

- 베이비붐 세대의 조사응답자가 제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들을 살펴보면(표 4-8. 참고), ‘우선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32명(3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치유에 적절한 지역이어서’ 23명(22.0%), ‘제주 관광

<표 4-8> 제주로의 이주 의향 이유(다중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관광·휴양지역이어서	11	10.5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32	30.5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7	6.6
친구 혹은 친지가 적극 권유하여서	6	5.6
제주 관광을 해본 후 노후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19	18.1
제주에 이미 거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서	4	3.8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좋아서	3	2.9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치유에 적절한 지역이어서	23	22.0
합 계	105	100.0

을 해본 후 노후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19명(18.1%), ‘관광·휴양지역이어서’ 11명(10.5%),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7명(6.6%), ‘친구 혹은 친지가 적극 권유하여서’ 6명(5.6%), ‘제주에 이미 거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서’ 4명(3.8%),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

기에 좋아서' 3명(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로는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22명(18.6%), '현재 거주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17명(14.4%),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와 제주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각각 16명(13.6%),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좋아서' 15명(12.7%), '제주에 아는 지인이 없어서' 11명(9.3%), '제주에 가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9명(7.6%), '제주인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8명(6.8%), '우수한 의료진·최첨단 병원 시설이 없어서' 3명(2.5%), 기타 1명(0.8%)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9. 참고).

<표 4-9> 제주로의 이주 의향이 없는 이유(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에 가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9	7.6
제주에 아는 지인이 없어서	11	9.3
현재 거주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17	14.4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16	13.6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22	18.6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좋아서	15	12.7
우수한 의료진/최첨단 병원 시설이 없어서	3	2.5
제주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16	13.6
제주인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8	6.8
기타	1	0.8
합계	118	100.0

3) 현재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희망 거주지역

- 현재 퇴직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퇴직 이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의향을 보면(표 4-10. 참고), '아니오' 102명(54.5%), '예' 86명(45.5%)으로 퇴직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10> 퇴직이후 다른 지역 거주 의향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예	85	45.5
아니오	102	54.5
합 계	187	100.0

- 조사응답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특별한 이유를 보면(표 4-12. 참고), ‘건강하게 더 오래살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21명(24.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재의 거주 지역은 너무나 복잡하고 공기가 좋지 않아서’ 17명(20%), ‘옛날 친구나 친지들과 지내는 일이 좋기 때문에’ 16명(18.8%),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14명(16.5%),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8명(9.4%),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어서’ 7명(8.2%), 기타 2명(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들은 퇴직 후에 타 지역에 살고 싶은 이유들이 대개 건강, 청정한 거주지역, 그리고 이웃 등을 고려하고 있음(표 4-11. 참고).

<표 4-1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특별한 이유

구 분	빈도(명)	비율(%)
현재의 거주 지역은 너무나 복잡하고 공기가 좋지 않아서	17	20.0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8	9.4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14	16.5
옛날 친구나 친지들과 지내는 일이 좋기 때문에	16	18.8
건강하게 더 오래살기 위해서	21	24.7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어서	7	8.2
기타	2	2.4
합 계	85	100.0

- 현재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 조사응답자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살고 싶은 지역으로는 ‘도시 근교 농촌지역과 농·산촌 지역’이 각각 38명(24.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지역’ 31

<표 4-12> 다른 지역의 거주 희망 지역(다중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도시 근교 농촌지역	38	24.2
농·산촌 지역	38	24.2
농·어촌 지역	17	10.8
대도시 지역	8	5.1
중·소도시 지역	31	19.7
관광·휴양 지역	19	12.1
외국	5	3.2
기타	1	0.6
합 계	157	100.0

명(19.7%), ‘관광·휴양 지역’ 19명(12.1%), ‘농·어촌 지역’ 17명(10.8%), ‘대도시 지역’ 8명(5.1%), ‘외국’ 5명(3.2%), 기타 1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12. 참고).

- 현재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들 가운데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103명(55.1%)이고, 반면에 ‘제주로 이주의향이 있는’ 경우는 84명(44.9%)으로 나타나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표 4-13. 참고).

<표 4-13> 제주로 이주할 의향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있다	84	44.9
없다	103	55.1
합 계	187	100.0

- 제주에 거주할 의향의 정도를 보면(표 4-14. 참고), 먼저 ‘아직은 조금 생각하는 중이다’라는 응답자가 30명(35.7%)으로 가장 많고, ‘여건이 마련되면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24명(28.6%), ‘가능한 한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18명(21.94), ‘꼭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12명(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4> 제주 거주 의향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꼭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12	14.3
가능한 한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18	21.4
여건이 마련되면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24	28.6
아직은 조금 생각하는 중이다	30	35.7
합 계	84	100.0

- 조사응답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가 제주로 이주할 생각이 있는 이유를 보면(표 4-15. 참고), 먼저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51명(3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 관광을 해 본 후 노후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33명(19.8%),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치유에 적절한 지역이어서’ 25명(15.0%),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20명(12.5%), ‘관광·휴양지역이어서’ 16명(9.6%), ‘친구 혹은 친지가 적극 권유하여서’ 10명(6.0%), ‘제주에 이미 거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서’ 6명(3.6%),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좋아서’ 5명(3.0%), 기타 1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5> 제주 이주 의향이 있는 이유(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관광·휴양지역이어서	16	9.6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51	30.5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20	12.0
친구 혹은 친지가 적극 권유하여서	10	6.0
제주 관광을 해본 후 노후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33	19.8
제주에 이미 거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서	6	3.6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좋아서	5	3.0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치유에 적절한 지역이어서	25	15.0
기타	1	0.6
합 계	167	100.0

- 따라서 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은 제주에 와서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 제주의 청정한 환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혹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다른 한편으로 조사응답자들이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없는 경우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보면(표 4-16. 참고),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41명(2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에 아는 지인이 없어서’ 34명(16.6%), ‘현재 거주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33명(16.1%),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좋아서’ 23명(11.2%), ‘제주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21명(10.2%),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20명(9.8%), ‘제주에 가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16명(7.8%), ‘제주인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13명(6.3%), ‘우수한 의료진·최첨단 병원 시설이 없어서’ 3명(1.5%), 기타 1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6> 제주 이주 의향이 없는 이유(다중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제주에 가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16	7.8
제주에 아는 지인이 없어서	34	16.6
현재 거주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33	16.1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20	9.8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41	20.0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좋아서	23	11.2
우수한 의료진·최첨단 병원 시설이 없어서	3	1.5
제주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21	10.2
제주인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13	6.3
기타	1	0.5
합 계	205	100.0

- 따라서 아직까지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베이비부머 응답자들이 제주로 이주하여 살 의향이 없다는 이유들이 대개 고향, 이웃관계, 제주의 지리적 접근성,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 제주에서 취업 가능성 등에 집중되어 있음.

4)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원 인식

① 경제적 지원

- 베이비붐 세대가 제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보면(표 4-17. 참고), 먼저 ‘제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지 분양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4명(28.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퇴직 후에 제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 78명(26.2%), ‘주택구입 및 수리비용의 지원’ 47명(15.8%), ‘영농자금의 지원’ 45명(15.1%),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임대 알선’ 31명(10.4%),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 13명(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7> 베이비붐 세대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유형

구 분	빈도(명)	비율(%)
퇴직 후에 제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	78	26.2
제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지 분양	84	28.2
영농자금의 지원	45	15.1
주택구입 및 수리비용의 지원	47	15.8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임대 알선	31	10.4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	13	4.4
합 계	298	100.0

- 베이비붐 세대의 조사응답자들은 제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대다수가 주택지 분양·주택구입과 일자리 알선을 들고 있음. 그리고 귀농에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농자금 지원과 토지임대 알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② 교육적 지원

- 베이비붐 세대가 제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지원으로는 ‘제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103명(3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생활풍습 등 제주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명(33.6%), ‘제주에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67명(22.5%), ‘제주방언 학습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26명(8.7%), 기타 2명(0.7%)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18. 참고).

<표 4-18> 베이비붐 세대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 유형

구 분	빈도(명)	비율(%)
제주방언 학습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26	8.7
제주생활풍습 등 제주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	33.6
제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103	34.6
제주에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67	22.5
기타	2	0.7
합 계	298	100.0

③ 사회적 지원

- 베이비붐 세대가 제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보면(표 4-19. 참고), 우선 ‘행정기관에서 제주 이주 은퇴자를 돕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1명(3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목활동 할 수 있는 친목단체 알선’ 63명(21.1%), ‘이주 후 성공적으로 정착한 은퇴자들에 의한 컨설팅 프로그램과 과거 경력·기술을 활용 가능한 직업소개 등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이 각각 50명(16.8%), ‘제주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사도우미 지원’ 43명(14.4%), 기타 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조사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 내용은 행정기관의 전담부서 설치, 일자리 알선,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 등에 쏠리고 있음.

<표 4-19> 베이비붐 세대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유형

구 분	빈도(명)	비율(%)
제주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사도우미 지원	43	14.4
행정기관에서 제주 이주 은퇴자를 돕는 전담부서 설치	91	30.5
친목활동 할 수 있는 친목단체 알선	63	21.1
이주 후 성공적으로 정착한 은퇴자들에 의한 컨설팅 프로그램	50	16.8
과거 경력·기술을 활용 가능한 직업소개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	50	16.8
기타	1	0.3
합 계	298	100.0

④ 보건·복지 지원

- 베이비붐 세대가 제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보건·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을 보면(표 4-20. 참고), 우선 ‘노인질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질병치료 시스템 마련’ 82명(27.5%), ‘질적으로 우수한 노인복지 시설 및 서비스’ 72명(24.2%), ‘우수한 노인전문병원 55명(18.5%), ‘노인건강 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 50명(16.8%), ‘제주로 온 이주 은퇴자 노인에 대한 특별복지 지원’ 37명(12.4%), 기타 2명(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0> 베이비붐 세대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보건·복지 지원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우수한 노인전문병원	55	18.5
노인질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질병치료 시스템 마련	82	27.5
노인건강 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	50	16.8
질적으로 우수한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72	24.2
제주로 온 이주 은퇴자 노인에 대한 특별복지 지원	37	12.4
기타	2	0.7
합 계	298	100.0

- 따라서 현재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들은 제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보건·복지지원 내용은 주로 맞춤형 질병치료 시스템 구축과 우수한 노인복지시설 마련에 모아지고 있음.

2. 은퇴자 조사 결과

가. 은퇴자 대상 조사 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Administrative questionnaire)가 사용되었으며 면접조사 경험이 많은 면접조사원이 자료를 수집하였음.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타 시·도에서 제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하

여 거주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음.¹³⁾ 그러나 1:1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조사대상 은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표본 선정은 타 시·도에서 거주하다가 경제사회적 은퇴를 한 후 제주지역에 와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대상자들을 표집하였음. 표집대상자들에 대한 통계적 DB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은퇴자들의 집단 거주지역, 은퇴자 자원봉사자 모임, 은퇴자의 개인적 소개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을 임의 표집하였음.
- 조사면접 대상자는 임의 표집(sampling)에 의해서 최종 100명을 선정하였으나 조사거부, 거주불명 등으로 인해서 86명을 본 조사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로 사용됨.
- 최종 분석은 빈도분석에 의한 기술적 설명(Descriptive explanation) 방식을 취했으며 은퇴자의 일반적 특성, 제주거주 생활만족, 제주거주의향 은퇴자에 대한 지원유형 등의 변인이 포함되었음.

나. 빈도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전체 응답자 86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3명(61.6%), 여성 33명(38.4%)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 졸 48명(55.8%), 고등학교 졸 19명(22.1%), 대학원

13) 본 연구에서 은퇴자는 직장생활로부터 퇴직하여 특별한 일에 종사하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층으로 의미규정을 하였으나, 본 조사를 위한 제주지역의 은퇴자 모집단에서는 타 시도에서 거주하다가 직장생활 혹은 하던 일을 완전히 그만 두고 제주에 이주해 온 연령층도 은퇴자 집단으로 분류하였음. 예컨대,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다녀 일정한 정년 나이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닌 정리해고나 강제퇴직,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 선택 등으로 사회경제적 은퇴를 한 경우가 있음.

수료 이상 17명(19.8%), 중학교 졸 2명(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6세~60세 이하 27명(31.4%), 51세~55세 이하 17명(19.8%), 61세~65세 이하 12명(14.0%), 50세 이하 11명(12.8%), 71세 이상 10명(11.6%), 66세~70세 이하 9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퇴 전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31명(36.0%), 경기 8명(9.3%), 부산과 충청남도가 각각 7명(8.1%), 대구와 인천이 각각 5명(5.8%),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외국이 각각 3명(3.5%), 광주, 대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가 각각 2명(2.3%), 울산 1명(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퇴 전 월평균 가계소득별로는 200만원~300만원 미만 25명(29.1%), 600만원 이상 18명(20.9%), 300만원~400만원 미만 15명(17.4%), 400만원~500만원 미만 12명(14.0%), 100만원~200만원 미만 10명(11.6%), 500만원~600만원 미만 6명(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월평균 가계소득별로는 100만원~200만원 미만 37명(43.0%), 200만원~300만원 미만 16명(18.6%), 600만원 이상 9명(10.5%),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각각 8명(9.3%), 400만원~500만원 미만 5명(5.8%), 500만원~600만원 미만 3명(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53	61.6
	여성	33	38.4
학력	중학교 졸	2	2.3
	고등학교 졸	19	22.1
	대학 졸	48	55.8
	대학원 수료 이상	17	19.8
연령	50세 이하	11	12.8
	51세~55세 이하	17	19.8
	56세~60세 이하	27	31.4
	61세~65세 이하	12	14.0
	66세~70세 이하	9	10.5
	71세 이상	10	11.6
은퇴 전 거주지역	서울	31	36.0
	부산	7	8.1
	대구	5	5.8
	인천	5	5.8
	광주	2	2.3
	대전	2	2.3
	울산	1	1.2
	경기	8	9.3
	강원도	2	2.3
	충청북도	3	3.5
	충청남도	7	8.1
	경상북도	2	2.3
	경상남도	3	3.5
	전라북도	2	2.3
	전라남도	3	3.5
	외국	3	3.5
은퇴 전 월평균 소득	100만원~200만원 미만	10	11.6
	200만원~300만원 미만	25	29.1
	300만원~400만원 미만	15	17.4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14.0
	500만원~600만원 미만	6	7.0
	600만원 이상	18	20.9
현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8	9.3
	100만원~200만원 미만	37	43.0
	200만원~300만원 미만	16	18.6
	300만원~400만원 미만	8	9.3
	400만원~500만원 미만	5	5.8
	500만원~600만원 미만	3	3.5
	600만원 이상	9	10.5
합 계		86	100.0

2) 은퇴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응답 은퇴자의 은퇴기간을 보면(표 4-22. 참고), ‘5년~10년 미만’이 36명(43.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년~5년 미만’ 20명(24.4%), ‘3년 미만’ 18명(22.0%), ‘10년 이상’ 8명(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은퇴기간이 대개 5년 미만과 5년 이상~10년 미만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4-22> 은퇴 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3년 미만	18	22.0
3년~5년 미만	20	24.4
5년~10년 미만	36	43.9
10년 이상	8	9.8
합 계	82	100.0

-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은퇴 이전에 어떤 일에 종사하였는지를 살펴해보면(표 4-23.참고), 은퇴 전에 사무관리직에 종사하였던 응답자는 19명(22.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영업 18명(20.9%), 전업 주부 10명(11.6%), 공무원 9명(10.5%), 전문직 8명(9.3%), 기타 7명(8.1%), 기술생산직 5명(5.8%), 판매서비스업과 단순직 노무직이 각각 4명(4.7%), 농림어업직 2명(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사무관리직에 종사하였던 은퇴자가 많은 것은 교육수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조사대상자의 75.6%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서 주로 사무관리직, 공무원,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였으리라 생각함.

<표 4-23> 은퇴 전 종사 분야

구분	빈도(명)	비율(%)
전문직	8	9.3
사무관리직	19	22.1
기술생산직	5	5.8
판매서비스업	4	4.7
단순직 노무직	4	4.7
농림어업직	2	2.3
공무원	9	10.5
자영업	18	20.9
전업 주부	10	11.6
기타	7	8.1
합 계	86	100.0

- 은퇴자들이 현재 가장 큰 고민의 1순위 사항을 보면(표 4-24. 참고), ‘자녀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28명(3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23명(27.7%), ‘새로운 일자리 찾기’ 13명(15.7%), ‘부모님 부양문제’ 8명(9.6%), 기타 7명(8.4%), ‘자녀들

<표 4-24> 현재 가장 큰 고민(1순위)

구분	빈도(명)	비율(%)
자녀문제	28	33.7
부모님 부양문제	8	9.6
새로운 일자리 찾기	13	15.7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23	27.7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사는 일	1	1.2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일	3	3.6
기타	7	8.4
합계	83	100.0

과 함께 사는 일' 3명(3.6%),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사는 일' 1명(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은퇴자들 가운데 61.4%가 자녀문제와 자신의 건강 회복 문제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자녀의 대학진학, 자녀 취업 및 결혼 혹은 사업 등에 대하여 주로 걱정하고 있고, 반면에 부모님 부양에 대한 문제는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
-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현재 제주에서 종사하는 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보면(표 4-25. 참고),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응답자가 27명(31.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업운영이' 17명(19.8%), '자원봉사 및 기타'가 각각 12명(14.0%), '재취업 7명(8.1%), '농사일 6명(7.0%), '귀농·귀촌 준비 5명(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5> 현재 제주에서 종사하는 일

구 분	빈도(명)	비율(%)
귀농·귀촌 준비	5	5.8
농사일	6	7.0
사업	17	19.8
재취업	7	8.1
자원봉사	12	14.0
쉬고 있다	27	31.4
기타	12	14.0
합 계	86	100.0

- 조사응답자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제주에서 살아가겠다'는 경우가 78명(92.9%)이고, 반면에 '그럴 생각이 없는' 경우가 6명(7.1%)으로 나타남. 따라서 거의 절대 대다수 은퇴자들은 향후 제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에 현재 거주하는 조사응답 은퇴자 가운데 향후 제주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사람들의 배타성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3명(50.0%), 기타 2명(33.3%), 그리고 ‘우수한 의료진·최첨단 병원시설이 모자라서’ 1명(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은퇴자의 제주생활 만족도

- 타 시도에서 제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제주거주 기간을 보면(표 4-26. 참고), ‘거주기간이 5년~10년 미만’이 36명(42.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년 미만과 3년~5년 미만’이 각각 22명(26.2%), ‘10년 이상’ 4명(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은퇴자의 거주기간은 5년을 기점으로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음.

<표 4-26> 은퇴자의 제주 거주기간

구 분	빈도(명)	비율(%)
3년 미만	22	26.2
3년 ~ 5년 미만	22	26.2
5년 ~ 10년 미만	36	42.9
10년 이상	4	4.8
합 계	84	100.0

-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제주에 오게 된 이유를 보면(표 4-27. 참고) 먼저 ‘지인의 권유’가 34명(41.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를 여행한 후 제주가 좋아서’ 19명(23.2%), 기타 14명(17.1%), ‘가족 및 친지의 권유’ 11명(13.4%), ‘미디어 보도를 보고’ 4명(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은퇴자들이 제주에 오게 된 주요 이유가 지인의 권유(가족 및 친지 포함)가 절반이 넘고 있어서 이미 제주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권유가 은퇴자의 제주이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됨.

<표 4-27> 은퇴자의 제주이주 이유

구 분	빈도(명)	비율(%)
제주를 여행한 후 제주가 좋아서	19	23.2
지인의 권유	34	41.5
미디어 보도를 보고	4	4.9
가족 및 친지의 권유	11	13.4
기타	14	17.1
합 계	82	100.0

- 조사응답 은퇴자의 제주로 오게 된 특별한 동기(1순위)에 대하여 살펴보면(표 4-28. 참고), 먼저 ‘청정 자연환경과 풍광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명(2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잡한

<표 4-28> 제주로 오게 된 특별한 동기(1순위)

구 분	빈도(명)	비율(%)
복잡한 도시가 싫어서	16	18.8
청정 자연환경과 풍광 때문에	17	20.0
건강회복 및 질병 치유	14	16.5
제주가 고향이어서	1	1.2
제주에 친구 혹은 친지가 있어서	11	12.9
기존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에 있어서	5	5.9
은퇴 전에 제주에 땅과 집을 사 놓아서	3	3.5
농사지으면서 농촌에서 살고 싶어서	2	2.4
제주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서	9	10.6
기타	7	8.2
합 계	85	100.0

도시가 싫어서' 16명(18.8%), '건강회복 및 질병 치유' 14명(16.5%), '제주에 친구 혹은 친지가 있어서' 11명(12.9%), '제주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서' 9명(10.6%), 기타 7명(8.2%), '기존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에 있어서' 5명(5.9%), '은퇴 전에 제주에 땅과 집을 사 놓아서' 3명(3.5%), '농사지으면서 농촌에서 살고 싶어서' 2명(2.4%), '제주가 고향이어서' 1명(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68명(81.2%), '보통' 11명(12.9%), '불만족하는 편인 경우'는 5명(5.9%)으로 나타남(표 4-29. 참고). 따라서 대다수의 조사대상 은퇴자들은 제주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음.

<표 4-30> 제주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매우 불만족	1	1.2	3.99
대체로 불만족	4	4.7	
보통	11	12.9	
대체로 만족	48	56.5	
매우 만족	21	24.7	
합 계	85	100.0	

- 타 시·도에서 제주로 이주하여 현재 제주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표 4-31. 참고), 우선 '청정 환경과 풍광이 좋아서'라는 응답자가 52명(48.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18명(16.7%),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17명(15.7%), '노후에 농사지으면서 살기에 안성맞춤이어서' 9명(8.3%), '동네사람들이 좋고 잘 도와줘서' 5명(4.6%),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와 개인생활이 잘 보호되어서' 그리고 기타가 각각 2명(1.9%),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편리

해서' 1명(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거주 은퇴자들의 제주생활에 만족하는 주요 요인들은 청정환경과 자연풍광, 자아실현, 취미생활 향유, 농사생활의 적절성 등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4-30> 제주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편리해서	1	0.9
동네사람들이 좋고 잘 도와줘서	5	4.6
청정 환경과 풍광이 좋아서	52	48.1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2	1.9
제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18	16.7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17	15.7
노후에 농사지으면서 살기에 안성맞춤이어서	9	8.3
개인생활이 잘 보호되어서	2	1.9
기타	2	1.9
합 계	108	100.0

- 반면에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제주생활에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제주인의 배타성을 인식한 경우'가 3명(5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도내 교통이 불편해서와 일거리가 없어서' 그리고 '육지 출입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각각 1명(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31. 참고).

<표 4-31> 제주생활이 불만족한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도내 교통이 불편해서	1	16.7
제주인의 배타성	3	50.0
일거리가 없어서	1	16.7
육지 출입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1	16.7
합 계	6	100.0

-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주위사람들에게 ‘은퇴 후 제주에 와서 거주할 것을 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9명(82.1%)이고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는 15명(17.9%)으로 나타남. 따라서 주위사람들에게 은퇴 후 제주에 와서 거주할 것을 권유한 경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현재 타 시·도에서 제주에 와서 거주하는 은퇴자들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표 4-32. 참고), 먼저 ‘주소지 옮겨와 상시 거주하는 경우’가 64명(7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소지 옮겨오지 않고 잠시 거주’ 10명(11.6%), ‘주소지는 옮겨오지 않고 잠깐 쉬었다 가는 정도’ 7명(8.1%), ‘주소지를 옮겨오지 않고 상시 거주’ 5명(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다수의 은퇴자들은 주소지를 옮겨와서 제주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32> 은퇴자의 제주 거주형태

구 분	빈도(명)	비율(%)
주소지 옮겨와 상시 거주	64	74.4
주소지 옮겨오지 않고 상시 거주	5	5.8
주소지 옮겨오지 않고 잠시 거주	10	11.6
주소지는 옮겨오지 않고 잠깐 쉬었다 가는 정도	7	8.1
합 계	86	100.0

- 타 시·도에서 제주에 와서 거주하는 은퇴자들이 ‘제주인으로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면(표 4-33. 참고), ‘외부인으로 제주의 환경보전과 후대 계승’(93.2%)과 ‘제주발전’(89.5%)의 희망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 은퇴자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긍정적 인식을 보였음.

- 제주거주 은퇴자들이 ‘제주의 자연, 인간 그리고 문화를 사랑한다 (79.1%)’는 인식과 ‘현재 제주이주를 후회하지 않는다’ (80.0%)는 인식을 감안할 때 제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반영해 줌.

<표 4-33> 제주거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제주는 잘 보 전하여 후세 에 물려주어 야 한다	1(1.2)	-	5(5.8)	25(29.1)	55(64.1)	4.55
제주가 잘 되 기를 바란다	1(1.2)	-	8(9.3)	29(33.7)	48(55.8)	4.43
제주의 땅, 물, 사람, 문 화 를 사랑한다	1(1.2)	1(1.2)	16(18.6)	30(34.9)	38(44.2)	4.20
제주에 와서 사는 것을 후 회하지 않는다	-	3(3.5)	14(16.5)	35(41.2)	33(38.8)	4.15
남은 여생을 제주에서 마 감하고 싶다	3(3.5)	4(4.7)	21(24.4)	20(23.3)	38(44.2)	4.00
제 주 거 주 에 대해 자랑스 럽다	-	3(3.5)	18(21.2)	41(48.2)	23(27.1)	3.99
친구, 선후배, 지 인 들 에 게 제주거주 권 하고 싶다	-	3(3.5)	22(25.6)	34(39.5)	26(30.2)	3.98
다시 태어나면 제주에서 태어 나고 싶다	9(10.5)	5(5.8)	38(44.2)	12(14.0)	21(24.4)	3.36

- 조사용답 제주거주 은퇴자들은 ‘제주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으며’(75.3%), ‘제주에서 남은여생을 보내고 싶다(67.5%)’는 인식과 ‘친구·선후배 등 지인에게 제주거주를 권하고 싶다(69.7%)’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다시 태어나면 제주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남(38.4%). 따라서 조사대상 제주거주 은퇴자들의 2/3는 비록 제주생활에서 만족하여 생활해 가고 있지만 제주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은퇴자에 대한 지원 인식

① 경제적 지원

- 은퇴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내용을 보면 (표 4-34. 참고), 우선 ‘퇴직 후에 일자리 알선’ 29명(3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택지 분양’ 15명(19.2%), ‘주택구입 수리비용 지원’ 12명(15.4%), ‘토지구입 자금 지원 8명(10.3%), ‘토지임대 알선’ 6명(7.7%), 기타 5명(6.4%), ‘영농자금 지원’ 3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4> 은퇴자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구분	빈도(명)	비율(%)
퇴직 후에 일자리 알선	29	37.2
주택지 분양	15	19.2
영농자금 지원	3	3.8
주택구입 수리비용 지원	12	15.4
토지임대 알선	6	7.7
토지구입 자금 지원	8	10.3
기타	5	6.4
합계	78	100.0

② 교육적 지원

- 은퇴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제주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38명(45.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생활

<표 4-35> 은퇴자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

구분	빈도(명)	비율(%)
제주 방언 학습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6	7.2
제주생활풍습 등 제주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18	21.7
제주에서 여러 가지 평생 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	38	45.8
제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18	21.7
기타	3	3.6
합계	83	100.0

풍습 등 제주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주에서 취업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이 각각 18명(21.7%), ‘제주어(방언) 학습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6명(7.2%), 기타 3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35. 참고).

③ 사회적 지원

-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보면(표 4-36. 참고), 먼저 ‘직업 소개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 29명(3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은퇴자 전담부서 설치’ 21명(25.0%), ‘성공적으로 정착한 은퇴자들에 의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18명(21.4%), ‘농사도우미 지원 9

명(10.7%), ‘친목단체 알선’ 4명(4.8%), 기타 3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은퇴자들은 은퇴 후에 쉬기를 원하지 않고 취업 알선 등 사회활동 참여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은퇴자를 위한 행정의 전담부서 설치와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표 4-36> 은퇴자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구분	빈도(명)	비율(%)
농사도우미 지원	9	10.7
은퇴자 전담부서 설치	21	25.0
친목단체 알선	4	4.8
성공적으로 정착한 은퇴자들에 의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18	21.4
직업소개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	29	34.5
기타	3	3.6
합계	84	100.0

④ 보건·복지 지원

-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보건·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면(표 4-37), 먼저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6명(30.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전문병원’ 19명(22.1%), ‘은퇴자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 15명(17.4%), ‘노인건강 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 14명(16.3%), ‘노인 질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질병치료 시스템’ 11명(12.8%), 기타 1명(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은퇴자들은 근본적으로 연령이 많기 때문에 우수한 노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4-37> 은퇴자의 제주이주에 필요한 보건·복지 지원

구 분	빈도(명)	비율(%)
노인전문병원	19	22.1
노인질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질병치료 시스템	11	12.8
노인건강 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	14	16.3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	26	30.2
은퇴자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	15	17.4
기타	1	1.2
합 계	86	100.0

3. 빈도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가. 베이비붐 세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54.3%)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이 가진 경력, 기술,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거나 혹은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줄 경우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38.7%(117명)를 차지하여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타 시·도 이주 의향도 많게 나타

난 결과를 감안할 때(김창현 외. 2011)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인구유입 전략을 집중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가계소득 분포를 보면,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인구유입에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2) 현재 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희망 거주지역

-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현재 퇴직한 사람은 38.1%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다른 지역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 비율은 48.7%(56명)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거의 절반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들은 주로 현재 복잡한 거주지역이 싫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귀농·귀촌하여 농사지으면서 살고자 하는 의향과도 관련성이 있음. 따라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어서 공기 좋은 농촌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의향이 강함.
-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도시생활에서 일생을 열심히 살고 난 후 퇴직 후에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거주지역(특히 농촌, 산촌 등)에서 심신을 쉬면서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보내려는 일면을 반영하고 있음.
- 조사대상 퇴직 베이비붐 세대들 가운데 향후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7.3%(53명)으로 나타나 제주이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로 이주하여 거주할 의향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심신의 치유에 적절한 지역, 제주 관광 후 살고 싶게 되어서 등이 주요 이유임. 따라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향후 제주에 와서 거주하고 싶은 주요 이유가 제주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주의 인구유입에 청정한 제주환경을 잘 보전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임.

3) 현재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희망 거주지역

- 현재 조사대상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퇴직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진 사람은 45.5%(85명)를 차지하고 있음.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특별한 주요 이유들을 보면, 현재의 거주지역이 너무 복잡하고 공기가 좋지 않은 경우, 건강하게 더 오래살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 친구나 친지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싶어 함.
- 다시 말해서 아직 은퇴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마음이 편한 옛 친구와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청정한 자연환경(특히 농촌, 산촌, 어촌, 중·소도시 지역)에서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 조사대상 은퇴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44.9%(84명)가 향후 제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로 이주하여 살고자 하는 이유가 주로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제주 관광 후 살고 싶은 선호지역, 그리고 건강 유지와 치유에 적절한 지역에 있음.
- 아직 퇴직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향후 제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함.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들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가 이주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4)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원 인식

- 조사응답 베이비붐 세대들이 인식하기로 제주도로 이주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책은 주로 거주 주택지 분양, 일자리 알선, 주택구입 및 수리비용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
- 조사대상 베이비붐 세대들은 제주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등을 제주이주에 필요한 중요한 교육적 지원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들이 향후 제주이주를 결정하기에 앞서 혹은 결정 이후에 제주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주어, 제주풍습, 제주문화 등에 대한 교육,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제주이주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책은 제주이주 은퇴자를 돕는 전담부서 설치,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친목단체 알선, 은퇴자 대상 컨설팅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
- 조사응답 베이비붐 세대들은 제주이주에 필요한 보건·복지 지원 대책으로는 노인질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질병치료 시스템 마련, 질적으로 우수한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우수한 노인전문병원 설립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나. 제주거주 은퇴자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조사대상 은퇴자 가운데 75.6%(65명)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학원을 수료한 은퇴자가 약 20%(17명)을 차지하여 이들이 가진 경력, 학식, 기술,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거나 혹은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줄 경우에 제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은퇴 전 거주지역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인 경우가 45.3%(39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유입 전략을 집중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은퇴 전 월평균 가계소득 분포를 보면, 월 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은퇴자가 41.9%(36명)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6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가진 은퇴자는 20.9%(18명)를 차지하여 은퇴 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은퇴자도 있었음.
- 은퇴 전에 중산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은퇴 후 제주에 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은퇴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 은퇴자의 은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3.7%, 44명)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많은 은퇴자들이 제주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 은퇴자 가운데 은퇴 전에 종사한 분야 중에 사무관리직이 22.1%(19명), 전문직 및 공무원 19.8%(17명) 그리고 자영업 20.9%(18명) 등이 많음. 특히 사무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공무원 경력을 가진 은퇴자들의 경륜, 기술, 인적네트워크 등을 지역발전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자녀문제와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과 관련되었음. 개인적 문제에 최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서 향후 지역사회 혹은 제주발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거주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바라는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욕구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 조사가 필요함.
- 조사대상 은퇴자들이 현재 제주에서 종사하는 일을 보면, 은퇴자의 31.4%(27명)가 쉬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19.8%(17명), 자원봉사 14.0%(12명), 재취업 8.1%(7명), 농사일 7.0%(6명) 등으로 나타났음. 은퇴자들 가운데 1/3 정도는 쉬고 있고, 나머지 은퇴자들은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음.

3) 은퇴자의 제주생활 만족도

- 조사응답 은퇴자들이 제주에 거주한 기간은 절반 이상 (52.4%, 44명)이나 5년 미만이어서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함. 반면에 5년 이상인 은퇴자는 47.7%(40명)를 차지하여 제주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함.
- 타 시·도에서 온 제주거주 은퇴자들은 제주로 오게 된 특별한 동기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들과 유사하게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

과 풍광, 복잡한 도시 거주 불만족, 건강회복 및 질병 치유, 친구 및 친지의 제주거주 등으로 나타남.

- 특히 이미 제주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 혹은 친지들이 권유하여 내려 온 경우(11.9%, 11명)가 있어서 향후에도 현재의 은퇴자들이 제주생활 만족도가 클 경우에 타시·도 거주 친구 혹은 친지들이 제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많음.
- 물론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존하여 은퇴자 혹은 다른 연령층도 노후에 건강회복과 치유를 위한 적절한 지역(특히 휴양지)으로 지켜 나가야 할 것임.
- 조사대상 제주거주 은퇴자들의 제주생활 만족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은퇴자들 가운데 81.2%(69명)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제주거주 은퇴자들이 제주생활에 만족하는 주요 요인들은 청정환경과 자연풍광, 자아실현, 취미생활 향유에 있음. 거의 절반(48.1%, 52명)이 제주생활에 만족하는 이유가 제주가 가진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이처럼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온 제주거주 은퇴자들이 향후 제주 거주 의향과 제주에 이주 동기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청정 자연환경에 있음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은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과 경관 관리에 보다 정책적 관심과 실천을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임.

4) 은퇴자에 대한 지원 인식

- 조사응답 제주거주 은퇴자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책은 주로 일

자리 알선이 1/3 이상 (37.2%, 29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은퇴자의 일자리 및 고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또한 주택지 분양과 주택구입 및 수리비용 지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노후생활을 알차게 보내려고 함. 그런 의미에서 제주거주 은퇴자들은 교육적 지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을 가장 많이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훈련 및 제주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희망하고 있음.
- 조사응답 제주거주 은퇴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책은 직업소개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 1/3 이상(34.5%, 29명)을 차지하며, 아울러 은퇴자 전담부서 설치도 25.0%(21명)로 나타나 도청 혹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 제주이주 은퇴자들에 대한 DB 구축 및 교육·관리·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가 필요함.
- 조사대상 제주거주 은퇴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지원대책으로는 우수한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 제공(30.2%, 26명), 노인전문병원 개원(22.1%, 19명), 그리고 은퇴자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17.4%, 15명) 등으로 인식하였음.

제5장 향후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 우리나라는 6. 25.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총 9년간에 걸쳐 출생한 세대가 전체 인구 가운데 약 713만명에 도달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용, 주택, 자산, 국가재정 등의 분야에 과급효과를 낳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2016년에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생활에서 퇴직하고 사회참여를 거의하지 않은 은퇴자 연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화·개방화·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제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동북아 관광휴양도시’ 조성과 역동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로부터 적정의 인구유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에 와서 거주하는데 동기도 부여하고, 아울러 정책적 지원을 할 경우에 인구유입 효과가 크리라 기대됨. 그래서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하는 일은 중요함.
- 따라서 본 장에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이 행복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미션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정수준의 인구 증가가 필요함. 그래서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의 제주유입과 관련하여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본내용 그리고 향후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1. 기본방향

-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의 성공적 제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제주이주 희망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중심의 접근
 - 제주지역에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상자의 입장에서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유입 대상자의 전략적 선택
 - 제주로 이주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지원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구유입 정책의 수립과 실천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기 때문에 외부 인구유입 문제는 지역주민의 도움과 협력이 요구됨.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제주로 이주해 오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가진 경륜, 지식, 기술, 역량, 자본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발전에 기여토록 유도 및 지원함.

2. 기본전략

-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을 통하여 인구유입 효과 제고 달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 제주거주 희망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형편, 이주동기와 기대 등)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원 의존형 보다는 자립역량 강화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보다는 제주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 수립 필요
 - 기본적 지원은 정착 초기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제주사회에 스스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전략
 - 젊은 베이비붐 세대 혹은 정리해고에 의한 젊은 은퇴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취업 알선 노력
-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의 통합적 전략
 - 타 시·도의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들은 제주사회에 새로운 이주자(new comers)이므로 정착지 주민들과의 상생 발전과 사회통합에 노력 필요함.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이주자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나눔, 배려 그리고 협력이 요구됨.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인구의 전략적 선택
 - 고령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는 휴양 선호자로 선택 분류
 - 장년층 혹은 준고령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는 재취업(귀농 및 다른 일자리) 선호자로 선택 분류
- 중앙 정부와의 협력적 전략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타 지역 이주에 대한 지원정책은 중앙 정부의 협력이 필요함.
 - 특히 귀농·귀촌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충이 요구됨.

3. 기본내용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새로운 이주자(new comers)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 개인적 수준에서 준비, 결정 그리고 이주 후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 강화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나눔과 배려 그리고 협력체제 구축
 - 지역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이주자에 대한 지원과 협력 제공 필요

4. 향후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정책과제

가.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제 구축

1) 중앙정부 수준의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와 은퇴자(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여 노후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역 등에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하고 있지만 은퇴 후 노후생활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단·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임. 특히 정부는 2010년 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5」에서 수립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여기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거나 혹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가) 베이비붐 세대 근로연장 지원 강화

- 중앙정부(특히 고용노동부)는 베이비붐 세대 근로연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음.
 -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감액분을 지원하여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고 있음.
 -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그치고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적극

- 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해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 지원, 중고령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 근거의 임의성과 권고사항으로 말미암아 고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고령자를 재취업, 고용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심과 지원 의지가 없으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지 못할 것임.
 - 정년 60세를 지키도록 하는 노력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음.
 - 선진국처럼 초고령사회 대비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60세 미만 정년금지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이외에도 정부는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 풀 구축(교육과학기술부),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정착(고용노동부),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보건복지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부처별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부처 간 중복사업의 방지와 예산 투입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나) 노인복지제도의 개선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다른 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소득보장과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

- 베이비붐 세대들은 개인저축, 연금 등을 통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65세 이상 은퇴 고령자들은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층 인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도를 도입,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 하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을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가칭)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와 사업들을 총괄하고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연령차별금지법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원하는 만큼 취업이 쉽지 않고, 또한 사회적으로 연령차별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가칭) 「고령자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고용에서처럼 고령자에게도 공공부문에 일정 비율(예 3%)의 고령자고용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나가야 할 것임.
- 고령사회에서 고령자가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고 소득보장이 마련되지 않고, 아울러 거주할 집이 없는 경우에는 노인 노숙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이 오래되어 보수·수리할 필요성 있기 때문에 농촌노인 특별 지원의 일환으로 (가칭)농촌 및 지역주거지원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체계 구축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총괄지원본부 신설이 필요함.
 -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 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의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 그리고 대한노인회 등의 민간단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혹은 고령자 고용창출 사업이 중복 투자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원화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지자체에서 노인고용 및 촉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일원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효과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중앙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두고 그 산하에 전국에 걸쳐 6개 권역의 각 지역본부(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강원, 호남, 중부지역본부)를 두어 노인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권역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산하에 제주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YMCA(고령자인재은행), 그리고 대한노인회 제주도지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로 하여금 (예비)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육성·지원이 필요함.

- 고령층이 (예비)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층과 함께 연대하여 공동 창업할 수 있는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임.
- 노-청연계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보다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 전문인력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경영 전문성이 취약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협동조합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활용하여 베이비부머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스스로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컨설팅 그리고 지원에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귀농·귀촌사업이 실제로 성공적 제주정착과 농촌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연계하도록함.

라) 「새로마지플랜 2015」의 정책과제 실천

-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의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2008년 보완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목표로 ①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②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③ 노후 준비와 활동적인 사회참여 기반 마련 ④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부문 등 총 67개 과제가 포함됨.
- 2010년에 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5」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베이비붐 세대 관련 총 4개 분야 36개 과제가 추가되었음. 「새로
마지플랜 2015」에서는 기존 정책이 65세 이상 노인 중심으로 수립
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맥락에서 베이비붐 세대
의 대응책도 포함시켰음.

○ 「새로마지플랜 2015」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 내용을 보면 다음
과 같음.

-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기간 연장

- 정년연장, 중년층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신규직종 창출 및 중·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 유능한 중 고령자
및 여성 인력의 활용도 제고, 장기적으로 중·고령자 적합기업
인증제 및 세제 혜택 부여

- 비영리부문과 일자리 연계 사업 추진

- 영리기업 출신자를 비영리부문에 취업 연계(재무, 마케팅, 경영관
리, 펀드레이징 등)
- 보건복지부의 양코르 프로젝트 추진 : 고령지식인 사회참여 사업

- 노후자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

- 은퇴설계 지원(재무설계 관리, 건강관리, 지역사회참여, 여가생활 등)
- 보건복지부 2011년 현재 전국에 「행복노후설계센터」 140개소 설
치(연금공단지사 및 센터 내)

-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은퇴한 중·고령자 활용한 경제 신성
장 동력화 사업 추진

- 시니어 기능전수체계 필요
- 건강관리서비스 및 향노화산업, 여가문화사업의 육성 등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지역에서 젊은 층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층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활성화 전략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유입에 정책적 관심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최근에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원 하에 귀농·귀촌사업을 통하여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혹은 젊은 층 인구 유입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가)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인구유입 지원 관련 조례 제정

- 타 시·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을 제주지역에 이주시켜 인구증가의 효과를 창출해 나가려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로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제주이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제주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에 대한 일자리, 고용, 직업훈련, 평생교육, 정착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 내용들을 포함해야 할 것임.

나)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의 활성화

- 43개 읍·면·동 지역에서 개설·운영 계획인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아직까지 전체 읍·면·동에 개설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43개 모든 읍·면·동 지역에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를 일률적으로

로 개설할 필요는 없고 제주정착주민의 규모와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센터의 개설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희망 거주지역이 농·산촌, 농·어촌, 도시근교 농촌지역이므로 제주지역의 읍·면 농어촌 지역에는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제주시 혹은 서귀포시의 모든 동(洞) 지역에 센터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동(洞) 지역 내 혹은 동 지역 간 특성들을 감안하여 통합운영 센터가 필요함.
- 읍·면·동의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는 외지인(예,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외국인, 귀농·귀촌인 등)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체제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 센터가 제주정착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업무 이외에 보다 체계적·종합적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임.
- 향후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고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여성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들은 제주이주 후에 일자리 혹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부응하는 고용촉진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은퇴자들도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유지할지라도 사회참여활동(취업, 자원봉사, 영농활동, 자아실현 등)을 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은퇴자들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알선 사업도 추진함.

다) (가칭)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

- 제주에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를 위해서 주택지 분양, 영농자금의 지원, 주택구입 및 수리비용의 지원, 토지임대 알선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
-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주택지 분양과 주택구입 및 수리 등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해 볼만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10년 전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2~2011」에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그 동안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음.
 - 현재 제주의 일부 지역에 전원마을 혹은 리조트단지(20여 가구 내외의 소규모 주거지역)가 조성되어 타 시·도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거주하다가 다른 정착이주민에게 주택을 매각하여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음.
 - 이처럼 조성되는 주거단지는 주택 및 토지가격이 비싸서 입주하기에 쉽지 않음. 그래서 충남 서천군의 사례처럼 국비 지원을 받아 정착이주민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함.
 - 충남 서천군에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에 의해서 농촌지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및 다른 지역의 노인, 은퇴자 혹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제주지역에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대학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동으로 검토 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타 시·도에서 제주로 이주 온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주거단지

를 조성할 때 행정기관은 조성단지 인프라 조성 관련 행정 및 정책 지원을 담당 역할을 하고, JDC는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 추진을 주관함.

- 도내 대학은 타 시·도에서 이주 온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젊은이(대학생)들과의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데 역할을 담당함.
- 대학에는 체조 및 걷기 지도자 양성, 치매 고령자 가족지원, 아이 양육지원, 건강리더 양성, 시니어 IT 지도자 양성, 고령자 말벗 봉사자 양성 등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함.
- 특히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 시설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내 대학 근처에 만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제주에 이주 온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들은 주거, 교육, 의료 등 관련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라) (가칭) 「제3의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 타 시·도 혹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제주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혹은 외국인들이 가진 경력, 기술, 전문 지식, 그리고 사회적 자본(인적 네트워크)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가칭) 「제3의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제3의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제주이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 외국인 등으로 구성됨. 위원회 위원들은 가능한 도외 지역 출신 인적자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3의 미래발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제3의 시각에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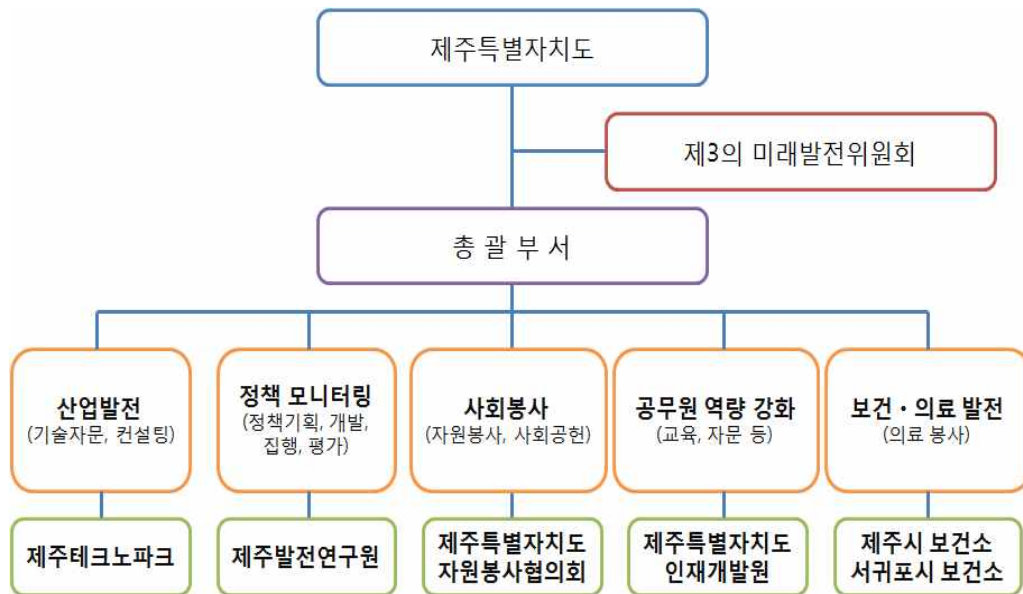
주발전과 현안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의견수렴, 도정 정책자문 등을 받음.

- 현재 혹은 향후 제주이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혹은 외국인들은 전문직(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공무원(중앙정부 고위 관료), 기업인(기업 및 공기업 CEO), 문화예술인, 건축가, 학자 등의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가지고 있음.
- 그래서 이러한 제주이주 정착주민들에 대한 DB 구축을 통하여 특성별, 직종별, 경력별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런 후 제주 발전에 열정과 헌신을 가진 인적자원들을 선정하여 (가칭) 「제3의 미래발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 제주이주 이전에 전문적 지식, 기술, 경력 그리고 특별한 인적네트워크 등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혹은 외국인들이 헌신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면 ‘제주발전의 제3의 길’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방향과 실천 전략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마) 공공기관의 특정 업무분야에 전문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타 시·도 혹은 외국에서 제주로 이주 온 베이비부머와 은퇴자 혹은 외국인에게 특수한 전문적 경력과 기술(예, 의사, 변호사, 정부 부처 고위관료 출신, 학자, CEO, 문화예술가, 등)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가진 인력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지방공기업 등에 시간제 근무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그림 5-1. 참고).
- 전문성, 공헌성 그리고 자발성 등을 가진 정착이주민들을 위한 시간제 근무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은 제주 현지인(특히 노인, 중고령층, 은퇴자, 청년 장기실업자 등)들의 취업 기회의 제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임.

- 제주지역 현지인(예, 제주 베이비부머, 은퇴자,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 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역량, 지식, 기술 그리고 경력 등을 지닌 제주이주 정착민에게 시간제 근무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정착이주민들 가운데 공공기관에 시간제 근무로 희망하는 지원자에 한정함.
- 제주지역의 공공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역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



<그림 5-1>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은퇴자 인재활용 추진 체계도

- 정착이주민의 지식, 경력, 기술, 인적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예, 산업발전, 정책개발, 공무원 교육, 보건·의료발전 등)과 자원봉사 분야에 일자리 알선이 필요함.
- 제주의 현재 혹은 미래 산업발전을 위해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의 CEO 출신(기술 분야 포함)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런 인적자원들은 제주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발굴과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기획, 정책개발, 정책집행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전직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및 연구원, 문화예술인 등이 제주로 이주하여 정착할 경우에 이들을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들에 대한 DB 구축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이주 베이비붐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에서 살아가면서 제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예, 환경지킴이, 문화해설사, 국제회의 통역사 등) 혹은 사회공헌가(사회헌금, 재능기부자, 펀드레이저 등)로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임.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DB 구축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음.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혹은 은퇴자들 가운데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 및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에서 DB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후생활을 위해서 제주로 이주 온 베이비부머 혹은 은퇴자들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특히)들로 하여금 제주의 보건소, 공공의료원, 그리고 대학병원 등에 자원봉사 혹은 재취업(시간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전문의들이 제주도내 의과대학 혹은 대학병원에서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제주이주 은퇴 의사들에 대한 DB 구축은 제주시 보건소와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분야별 인력활용을 위해 해당 기관이 DB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음.
- 각 분야별 DB 구축을 하는 기관은 먼저 총괄부서와 협조하여 제주이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 가운데 재취업이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총괄부서에서는 전문직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제주로 이주한 베이비부머 혹은 은퇴자들에 대한 여러 기관들에 의해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기본적 사항을 바탕으로 실제로 시간제 근무 계약적으로 재취업하거나 혹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재취업 실행계획을 수립 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3의 미래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

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총괄전담 부서 설치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의 DB 구축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자리, 문화탐방, 농업기술, 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이 필요함.
- 그래서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의 제주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내 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현 단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주로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교육을 실행하고 있고, 또한 자금 지원(창업, 주택, 빈집 구입 등), 상담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도청 내 자치행정과에서 제주주민정착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읍·면·동 지원센터에서 민원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사) 귀농·귀촌 사업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각 지부센터, 서귀포시청 그리고 농협이 귀농인을 위한 농업기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빈집구입 및 수리, 농업인턴보조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자체가 단순하며, 산발적이며, 종합적이지 못하고, 동시에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협조 하에 제주지역의 귀농·귀촌사업의 재편화를 통해서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의 제주이주를 촉진시켜 인구유입 효과 창출 및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귀농·귀촌 사업은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귀농·귀촌 준비 단계

- 제주농업 및 농촌생활 그리고 이주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주 농촌지역 사전답사프로그램 운영
- 영농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농촌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실행 단계

- 귀농·귀촌형 혹은 귀촌형 등 유형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영농활동, 일자리 알선 및 행정지원
- 농지·주택구입 등 저리자금 융자지원 안내



귀농·귀촌 이후 단계

- 정기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및 자문
 - 지역주민과의 융화지원 등
 - 지역사회 참여 유도
 -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의 귀농·귀촌 사업은 제주지역 내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혹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도내 읍·면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 20.0% 이상 차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청장년층이 귀농·귀촌하게 되면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아) 제주이주·정주 촉진사업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에 이주하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도민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행정적 창구역할을 맡음.
- 전담공무원 배치, 상담창구 개설, 정보제공, 전용홈페이지 등 개설, 안내문서 작성 등

- 도내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가 일선 현장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
- 민간단체(NPO, NGO, 기업 등)를 중심으로 (가칭) 「제주금빛생활협의회」를 결성하여 「제주이주·정주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제주이주·정주추진사업」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주지역 읍·면·동 혹은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여 그곳에서 생활해 보고 싶은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에게 단독형, 빌라형, 콘도형, 펜션형 등 가능한 여러 형태의 시설을 준비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역 내 기업에 양도하여 주택을 건설한 기업이 이주자를 모집·판매하는 방법으로 민관협력형 사업 형태로 추진 가능함.
- 다른 한편으로 일본 북해도의 아사부정(厚沢部町)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출자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제주이주·정주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함.
- 특히 마을단위에서는 빈집이나 폐교 시설도 리모델링하여 제주이주 희망자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제주이주·정주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제주이주·정주추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제주도의 재정여건상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주·정주 촉진 사업 외국 사례 : 일본 북해도 아사부정(厚沢部町)

- 100% 정(町)이 100% 출자하여 「멋진 과소 마을만들기주식회사」 2009년 설립
- 대표이사 : 정장(町長)
- 상근직원 : 5명
- 시설 : 장기 체재형 시설(1주1일 이상 6개월까지) 4동 2010년 완성
- 체재비 : 1주일(6만엔), 2주일(8만엔), 3주일(10만엔), 1개월(12만엔)
- 사업추진 이유
 - 100만이 넘는 하코다테시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15분 거리에 위치한 아사부정(厚沢部町)은 인구감소 지역(2008년 12월 현재 4,705명)이고, 노인인구가 30% 넘는 고령화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였음.
 - 아사부정(厚沢部町)은 특별한 관광자원은 없으나 풍부한 자연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여 이주·정주 촉진사업이 필요하였음.
- 사업대응방법
 - 단기 체재, 장기체재, 완전이주 등 아사부정(厚沢部町)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연관 사업 추진
 - 아사부정은 2008년 도에 국토교통성 시범사업으로 NPO법인 국제공헌센터의 협력을 받아(인재수용사업)도 실시했음.
 - 이 사업은 대기업상사 등 퇴직한 회원이 80%를 넘는 국제공헌센터 회원들을 장기 체재로 수용하여 지역에 있는 자원활용에 대한 조언을 받는 사업이었음.
 - 아사부정(厚沢部町)에서의 체재가 끝나 아사부정(厚沢部町)를 떠난 후에도 “아사부응원단”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과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는 등 과소지역에 대한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었음.
- 사업 준비 내용
 - 각 시정촌에 체험할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여 그곳에서 생활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파트형, 호텔형 등 장기체류가 가능한 여러형태의 시설을 준비하였음.
 - 문의처인 「훗가이도 이주 교류 종합안내 창구」를 설치하고, 시정촌에는 각각 「전용 One-stop 창구」도 설치하여 모든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함.

출처 <http://www.sutekinakaso.com>,

보건복지부(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92쪽 참고 재정리.

나. 행정의 지원 의존형 보다 자립생활 역량 강화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생활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어(혹은 제주방언)를 잘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의 평생교육원, 제주어보존회,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 등에서 제주어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주어 학습 기회를 제공함.
- 제주문화, 환경, 생활풍습 등을 배우고 익히는 제주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귀농교육 프로그램에도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해 나가야 할 것임.
 - 제주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 혹은 평생교육·학습기관들이 제주이주 희망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전통문화와 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 행정시의 평생학습센터, 도 평생교육진흥원, 귀농의 집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재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이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교육훈련

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제주이주 베이비붐 세대 및 은퇴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도는 이에 지원을 강화해 나감.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전문 직종에 종사한 경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에 전문화된 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이주를 희망하여 제주 정착을 결정할 경우에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의 정착과정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컨설팅 상담 지원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이 제주에 정착하여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응과정 상의 새로운 욕구, 애로사항, 당면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함.
- 정기적 실태조사는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에서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면에 컨설팅이나 상담지원은 자원봉사자 혹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베이비부머(혹은 은퇴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함.

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나눔·배려 그리고 협력체제 구축

1) 지역사회의 민간단체·NGO 단체와 네트워킹

- 민간단체(특히 자원봉사단체) 혹은 NGO 단체들은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의 전문성, 기술 그리고 경력·경륜 등이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활성화 연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가 협력하여 타 시·도에서 제주이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지원자의 경력과 특성(외국어 통역, 환경 및 문화해설, 재난구조, 적십자봉사 등)에 따라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부여함.
-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와 도내 대학이 연계하여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의 제주사회 적응과 기여를 위한 상시 컨설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성공적 제주 정착을 한 기존 이주자들과 정기적으로 조우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는 제주이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주에서 오래 전에 이주하여 정착해 온 타 시·도의 향우회 단체(혹은 회원)와 연계하여 정착 과정에서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2)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창업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모두가 영농 혹은 축산활동에 종사하여 농업 혹은 축산업을 창업 혹은 재취업하지는 않을 것임.
- 제주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 가운데 영농활동에 참여하여 농민이 되는 길을 포기하여 다른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주자들도 있을 것임.
- 제주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귀촌을 원하는 제주이주자들로 하여금 제주지역의 청정농산물 유통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창업할 필요가

있음.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지식, 경력을 가져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또한 지역별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농산물 판매·유통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에 적절하다고 생각됨.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혹은 은퇴자들이 창업한 (예비)사회적기업은 마을 혹은 읍·면지역에서 생산된 제주의 청정농산물을 타 시·도의 직장동료와 지역주민(특히 아파트단지 주민)과 직거래 유통을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임.

3) 「귀농인의 집」 개설 및 운영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에 이주하여 귀농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 충남 서천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귀농인의 집」을 읍·면 농촌지역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 혹은 제주에 거주하는 귀농 희망자들이 귀농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이전에 미리 귀농 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접 영농활동도 체험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귀농인의 집」 개설은 읍·면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거나 혹은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음. 운영은 행정기관 보다는 민간부문의 「지역귀농인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지역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

- 지역주민들은 타 시·도에서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서 마을에 온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외국인까지 포함)들을 따뜻하게 맞이

하고 마을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나눔과 배려를 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자생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주의 전통적 ‘수놓음 정신’을 되살려 마을의 새로운 거주자(new comers)를 돕는 마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예컨대, 자생단체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시켜 단체에서 주관하는 일에 소임을 주어 함께하는 인식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만일 마을에 타 시·도에서 온 새로운 거주자들이 많을 경우 마을 차원에서 (가칭) 「마을다문화회」와 같은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도록 함.
- 특히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선도농가의 농업경영인들로 하여금 농사도우미(멘토,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즉 마을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귀농 베이비부머 혹은 은퇴자가 있을 경우에 농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로 이주해 올 경우에 질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 다시 말해서, 제주지역에 우수한 병원시설과 좋은 보건·의료복지서비스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대체로 준고령자 혹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노인질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질병예방 및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공공의료시설(의료원 등)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시설들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전문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서귀포시에 「제주권역재활병원」이 2013년 말에 개관되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층의 질병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재활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민간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광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질적으로 나은 노인의료서비스(노인병 예방·진단 및 치료 관련 전문의 중심 운영)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데 미흡한 실정임.
 - 사실상 제주지역에 노인병학, 노인질환, 노인예방학 등 분야에 우수한 전문의와 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혹은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등이 선도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에 「노인전문병원」 개설 및 운영 필요함. 왜냐하면 제주는 고령화 속도가 전국 타시도 보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아울러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노인의료서비스(노인병 예방·진단·치료, 노화방지, 운동, 재활 등)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 필요
 - 민간 혹은 공공부분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는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 대부분 준고령자 혹은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우수한 병원 시설이 필요함. 우수한 병원을 지역에 설립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 나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관광, 휴양 및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구축될 것임(JDC 홈페이지 참고).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일원 1,539,013m² (약 47만평) 부지에 웰니스 파크(건강검진센터, 재활대체의료센터, 숙박시설 등), 메디컬파크(종합병원, 특화전문병원 등), R&D 파크(노화 예방연구소, 바이오 연구센터, 신약연구소 등) 등을 조성하는데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주체이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주체가 될 것이며 2008~2015년 사이에 사업비 7,845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타 시·도의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들이 제주에 와서 주로 중산간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큼. 그래서 읍·면 지역의 보건소 기능을 대폭 재정비하고 행정 의료지원 강화를 통해서 고령층에게 의료보건서비스를 가까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과 운영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함.
- 그러나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이지만 인력, 예산, 시설 등으로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노인 및 고령자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일차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 제주지역에는 공공의료시설로는 의료원(제주시, 서귀포시) 2개소, 제주권역재활병원(2013년 말에 개원 예정) 1개소, 그리고 보건소(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46개소)가 6개소가 있음.

□ 참고문헌

- 강승진·고상환(2011). 「제주지역 귀농·귀촌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김명중(2005).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노동브리프, 2005.
- 김준영(2011).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에
관한 연구.” 한일경제논총 제50권.
- 김창현·변필성(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
연구원.
- 남기민. “미국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발달과 전망.” 「한국사회
과학연구」 제30집 1호, 2008.
- 노동부(2008).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 박동석·김대환 외.(2003). 「고령화 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 박영란 외. (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보건복지부. 2011. 9.
- 보건복지부(2011). “주요정책 추진방향.” 「2012년 업무계획」
-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2). 「삼성생명 은퇴백서 -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2」
- 손은경(2012). “고령화가 일본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KB daily
지식비타민」 2012-152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이건직 (2007).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 「21세기 제주고
령사회 전망과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 자료. 제주발전연구원·제주도.
- 이건직 (2012).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호와 대응전략.”

- 「100세 시대 도래와 제주의 산업·경제분야 변화」 JDI 제주미래 포럼 자료. 제주발전연구원.
- 이삼식 외 (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2011).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정부부처 합동세미나 자료. 2011. 12. 8.
- 이삼식 외 (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판용(2011). “한·미·일 베이비부머의 은퇴 상황 비교.” 「CEO Focus」 제 273호. 농협경제연구소.
- 정경희 외(201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남상호 외(2011). 「베이비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2012). 「내부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KOSIS.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KB 경영연구소(2012). 「장래인구추계」
- 국가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고용노동부고령자사회참여: <http://www.moel.go.kr/policyinfo/aged/main.jsp>
- 보건복지부: www.mw.go.krfront_new/jc/sjc0109mn.jsp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붐세대 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http://www.jdcenter.com/bz/project/health.htm>
- 통계청: <http://www.kosis.kr>

□ 부 록 1

베이비붐 세대 대상 인구유입 방안 연구

면접조사표

--	--	--

[베이비붐 세대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를 제주지역에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어 귀하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이 제주지역의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 9.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박성준

연구책임: 고 승 한 박사(☎ 726-6145. FAX 726-7410.

soc628@jdi.re.kr)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조사센터 최 영 근 박사 (☎ 726-7403)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통칭하여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합니다. ♣

♣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퇴직자의 향후 거주지역

1. 귀하는 퇴직한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2번 문항으로

1-1. (☞ 1번 문항의 ①응답자) 그렇다면 귀하는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① 제주지역 ② 제주 외 다른 지역

1-2. (☞ 1번 문항의 ①응답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① 현재의 거주지역은 너무나 복잡하고 공기가 좋지 않아서
 ② 새로운 일(구직, 창업 등)을 하기 위해서 ③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④ 옛날 친구나 친지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⑤ 건강하게 더 오래살기 위해서
 ⑥ 귀농·귀촌하여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어서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3. (☞ 1번 문항의 ①응답자) 귀하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어떤 지역에 살고 싶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도시 근교 농촌지역 ② 농·산촌지역 ③ 농·어촌지역
 ④ 대도시 지역 (서울, 부산 등) ⑤ 중·소 도시지역 ⑥ 관광·휴양지역
 ⑦ 외국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 귀하는 앞으로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3번 문항으로

2-1. (☞ 2번 문항의 ①응답자) 귀하는 제주도에 거주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 ① 꼭 제주에서 가서 살고 싶다
- ② 가능한 한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 ③ 여건이 마련되면 제주에서 살려고 한다
- ④ 아직은 조금 생각하는 중이다

2-2. (☞ 2번 문항의 ①응답자) 그렇다면 왜 제주도로 이주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두 가지 만 선택)

- ① 관광·휴양지역이어서
- ②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 ③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 ④ 친구 혹은 친지가 적극 권유하여서
- ⑤ 제주도 관광을 해 본 후 노후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 ⑥ 제주에 이미 거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서
- ⑦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좋아서
- ⑧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치유에 적절한 지역이어서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3. 귀하는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

- ① 제주에 가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 ② 제주에 아는 지인이 없어서
- ③ 현재 거주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 ④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 ⑤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 ⑥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좋아서
- ⑦ 우수한 의료진·최첨단 병원 시설이 없어서
- ⑧ 제주에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 ⑨ 제주인(토박이)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 ⑩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5-2. (☞ 5번 문항의 ①응답자) 그렇다면 왜 제주도로 이주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

- ① 관광·휴양지역이어서 ②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 ③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④ 친구 혹은 친지가 적극 권유하여서
- ⑤ 제주도 관광을 해 본 후 노후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 ⑥ 제주에 이미 거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서
- ⑦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좋아서
- ⑧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치유에 적절한 지역이어서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6. 귀하는 제주도로 이주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만 선택)

- ① 제주에 가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 ② 제주에 아는 지인이 없어서
- ③ 현재 거주지와 너무 떨어져서
- ④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 ⑤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 ⑥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좋아서
- ⑦ 우수한 의료진·최첨단 병원 시설이 없어서
- ⑧ 제주에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 ⑨ 제주인(토박이)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 ⑩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현재 퇴직자와 미퇴직자 공통사항

7. 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제주로 이주하는데 어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퇴직 후에 제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직장 등) 알선
- ② 제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지 분양
- ③ 영농자금의 지원
- ④ 주택구입 및 수리비용의 지원
- 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임대 알선
- ⑥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8. 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제주로** 이주하는데 어떤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제주방언 학습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 ② 제주생활풍습 등 제주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 ③ 제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 ④ 제주에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 ⑤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9. 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제주로** 이주하는데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제주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사도우미(멘토) 지원
- ② 행정기관에서 제주 이주 은퇴자를 돕는 전담 부서 설치
- ③ 제주에서 친목 활동할 수 있도록 친목단체 알선
- ④ 제주에 이주 후 성공적으로 정착한 은퇴자들에 의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⑤ 과거의 경력·기술을 활용 가능한 직업 소개 등 사회참여 기회 제공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0. 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제주로** 이주하는데 어떤 **보건·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제주에 우수한 노인전문병원이 있으면
- ② 제주에 노인질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질병치료 시스템이 마련되면
- ③ 노인건강 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면
- ④ 질적으로 우수한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면
- ⑤ 제주로 온 이주 은퇴자 노인에 대한 특별 복지지원이 있으면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개인적 특성

1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12.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 졸업 (중퇴 포함) ⑤ 대학원 수료 이상

13.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14.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 ⑦ 울산광역시 | ⑧ 경기도 | ⑨ 강원도 |
| ⑩ 충청북도 | ⑪ 충청남도 | ⑫ 경상북도 |
| ⑬ 경상남도 | ⑭ 전라북도 | ⑮ 전라남도 |
| ⑯ 외국 | | |

15. 귀댁의 현재 월평균 가계소득은 얼마입니까?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 ⑤ 400만원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 600만원 미만 |
| ⑦ 600만원 이상 | |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 록 2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연구

면 접 조 사 표

--	--	--

[제주거주 은퇴자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은퇴자 인구를 제주지역에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어 귀하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이 제주지역의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 9.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 ·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장 박성준

연구책임: 고 승 한 박사(☎ 726-6145. FAX 751-2168.

soc628@jdi.re.kr)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조사센터 최 영 근 박사 (☎ 726-7403)

6. 귀하는 앞으로 제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십니까?

- ① 예 ☞ 7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6-1. (☞ 6번 문항의 ②응답자) 귀하는 제주에 거주하지 않을 생각이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③ 제주 사람들의 배타성 때문에
 ② 가족들과 떨어져 사니까 외로워서 ④ 생활편의 및 문화 시설(백화점, 공연장 등)이 부족하여
 ⑤ 우수한 의료진·최첨단 병원시설이 모자라서 ⑥ 적절한 일자리가 적어서
 ⑦ 제주에서 사업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아서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제주거주 일반 특성

7. 귀하는 제주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8. 귀하는 제주에 어떤 경로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 ① 제주를 여행한 후 제주가 좋아서
 ② 지인(친구, 선·후배 등)의 권유로
 ③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를 보아서
 ④ 가족(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 및 친지의 권유로
 ⑤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9. 귀하는 제주에 오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가장 중요한 순위의 번호 선택)

제 1순위 ()번, 제 2순위 ()번

- ① 복잡한 도시 생활이 싫어서
 ②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③ 건강 회복 및 질병 치료를 위해서 ④ 제주가 고향이어서
 ⑤ 제주에 친구 혹은 친지가 있어서
 ⑥ 기존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에 조성되어서
 ⑦ 은퇴 전에 제주에 땅과 집을 사 놓아서
 ⑧ 농사지으면서 농촌에서 살고 싶어서
 ⑨ 제주에서 새로운 일(농사 이외 사업)을 하게 되어서
 ⑩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0. 귀하는 제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 편이다 ☞ 10-1번 문항으로
- ② 대체로 불만족한 편이다 ☞ 10-1번 문항으로
- ③ 보통 ☞ 11번 문항으로
- ④ 대체로 만족한 편이다 ☞ 10-2번 문항으로
- ⑤ 매우 만족한 편이다 ☞ 10-2번 문항으로

10-1. (☞ 10번 문항의 ①,②응답자) 귀하는 제주생활이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제주도내 교통이 불편해서
- ② 제주인(토박이)의 배타성
- ③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 ④ 생활물가가 비싸서
- ⑤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 ⑥ 제주의 생활문화(언어, 경조사 등)에 익숙하지 못해서
- ⑦ 생활편의 및 문화 시설(백화점, 공연장 등)이 부족해서
- ⑧ 육지 출입에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⑨ 우수한 의료진·최첨단 병원시설의 부족
- ⑩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0-2. (☞ 10번 문항의 ④,⑤응답자) 귀하는 제주생활에서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
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이 편리해서
- ② 이웃이나 동네사람들이 좋고 잘 도와주어서
- ③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이 좋아서
- ④ 제주에 투자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 ⑤ 제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 ⑥ 취미생활(운동, 낚시, 등산, 등)을 즐길 수 있어서
- ⑦ 노후에 농사지으면서 살기에 안성맞춤이어서
- ⑧ 제주에서는 개인생활이 잘 보호되어서
- ⑨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1. 귀하는 주위 지인들에게 은퇴 후 제주에 와서 살라고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2. 귀하는 제주에서 **현재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계십니까?

- ① 주소지를 옮겨와 상시 거주하고 있다
- ② 주소지는 옮겨오지 않고 상시 거주하고 있다
- ③ 주소지는 옮겨오지 않고 잠시 거주하고 있다
- ④ 주소지는 옮겨오지 않고 잠깐 잠깐 쉬었다 가는 정도다
- ⑤ 주소지는 옮겨 놓았지만 거의 거주하고 있지 않다

13. 귀하는 **은퇴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는데 어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퇴직 후에 제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직장 등) 알선
- ② 제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지 분양 ③ 영농자금의 지원
- ④ 주택구입 및 수리비용의 지원 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임대 알선
- ⑥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4. 귀하는 **은퇴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는데 어떤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방언 학습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 ② 제주생활풍습 등 제주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 ③ 제주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알선 및 지원
- ④ 제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⑤ 기타 _____

15. 귀하는 **은퇴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는데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사도우미(멘토) 지원
- ② 행정기관에서 제주 이주 은퇴자를 돕는 전담 부서 설치
- ③ 제주에서 친목 활동할 수 있도록 친목단체 알선
- ④ 제주 이주 후 성공적으로 정착한 은퇴자들에 의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⑤ 과거의 경력·기술을 활용하여 직업 소개 등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6. 귀하는 **은퇴자들이 제주로 이주**하는데 어떤 **보건·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에 우수한 노인전문병원이 있으면
- ② 제주에 노인질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질병치료 시스템이 마련되면
- ③ 노인건강 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면
- ④ 질적으로 우수한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면
- ⑤ 제주로 온 이주 은퇴자 노인에 대한 특별 복지지원이 있으면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7.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도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 ① 농촌지역 ② 농촌·해안지역 ③ 중산간 지역
- ④ 도심 외곽지역 ⑤ 도심지역

개인적 특성

18.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19.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대학 졸업 (중퇴 포함) ⑤ 대학원 수료 이상

20.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21. 귀하의 은퇴 전 거주지역은?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 ⑪ 충청남도 ⑫ 경상북도 ⑬ 경상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전라남도
- ⑯ 외국

22. 귀하의 은퇴 전 월평균 가계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 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23. 귀하의 현재 월평균 가계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 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24.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사항에 √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제주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제주에 와서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제주의 땅, 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사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주는 잘 보존하여 후세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주위의 친구, 선후배 혹은 지인들에게 제주에 와서 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제주가 잘되기를 마음속으로 항상 바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남은여생을 제주에서 마감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제주에서 태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Population Inducement Measures Against Baby Boom Generation and Retiree

Seung-Hahn Koh, Jung Ji Hyung & Hong Su Soung

Keyword: baby boomer, baby boom generation, retirement, retiree, retirement age, refarming, rural remigration, supportive policy for baby boomers and retirees, population inducement

There has exclusively existed socioeconomic concerns and policies against baby boom generation born between 1955–1963 in Korea, and retiree with over 65–age. The specific effects on them may be affordable to labor market and asset market and further national financial problem loaded to a social welfare sector's fiscal expenses. In Korea, the baby boom generation's retirement out of labor market is likely to generate the lack of labor power in diverse industrial sectors.

Another critical thing is to induce those re-migration friendly residents in cities into rural communities for their population increase. Jeju local government is also literally interested in how to increase its total population towar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t seems that one available way to do it is to bring baby boomers and retiree of other cities into Jeju.

In dealing with how to pull baby boom generation and retiree into Jeju, this study would cast some significant policies. To meet this goal,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the 302 baby boomers in other cities, as well as 86 retirees who have moved into and settled down Jeju.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8–October 8 in 2012 by using either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 or in-depth interview methods. The statistical analytic method was

dependent on frequency analysis.

Some primary general characteristics(ex.,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dwelling period, household income, and so on) of both baby boom generation and retiree from other cities are identified in terms of frequency analysis. Besides this, several critical factors such as migration intention and its reasons, and Jeju's life satisfaction are analytically explained. Finally, several important policies essential to migration into Jeju are analyzed.

Based on frequency analysis, the significant outcomes implicitly compromise the following things : 1) the nearly half of baby boomers interviewed has intention to Jeju migration, 2) the most critical reason for it is related to Jeju's natural beauty and landscape, 3) this is also considerably eligible to Jeju's retiree settlement. 4) for retirees from the mainland, life satisfaction is highly recognized, 5) both baby boom generation and retiree have recognized that several socioeconomic and educational assistances(ex., land/house purchase, employment services, job training/lifelong education program, counseling for retirees, and so on) are necessary for remigration inducement toward future Jeju.

Related to the future policy initiatives on kick-off for Jeju migration among baby boomers and retiree who have lived in non-Jeju areas, we have several significant policy initiative measure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pay attention to rebuilding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ing system such as baby boomers' employment continuity by 60-age, elder welfare system reform and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old people.

Second, for Jeju local governmen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ordinance in order to help the migrants out of the mainland in Korea. Futhermore, the revitalization of so-called Supporting Center for Jeju Migrants targeted to baby boomer and retiree from non-Jeju region is significantly necessary. In the long-ter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are seriously likely to rethink the residence zoning development for Jeju-migrant baby boom generation and retiree, along with a much more systematic support for the migrants toward farming and rural

settlement in Jeju. To do it, we need full-pledged institution or division within local government authority in deal with various projects and tasks for them.

Third, a more important thing is to solidify self-independent life sustainability rather than dependence upon the local government. Then, there are several educational programs in order to help new comers from other cities and regions. That is about learning a Jeju language as its unique dialectic that may be so difficult to grip a mutual dialogue between Jeju indigenous people and others. Besides these, new comers need a programme for social adaptation, re-employment training, and personal counseling in Jeju society as a whole.

Fourth, it seems that common understanding and warm hospitality culture between new comers and community are to make impact their successful adaptation to a new village migrated. It will need a much more cooperative networking system. To open and operate so-called 'Migrating Home for Farming' is helpful to inducing a successful adaptation for baby boomers and retiree who have come from non-Jeju regions.

Finally, both public health system and medical services for the old people would be improved in a much more qualified way. For example, given to the community and consumer oriented-medical and medicare facilities, the medical hospital for the aged people are needed to build.

Considering Jeju's future population sized-expansion,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measures stemming from data analysis would be seriously approached in terms of both short period and medium-long period.

연구진

연구책임 : 고 승 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정 지 형(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홍 수 성(한국은행제주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현안연구 2012-06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대상 인구유입 방안

발행인 || 양 영 오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시 오라 2동 44-1(아연로 253)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한미기획출판 (064) 753-7891

ISBN : 978-89-6010-268-2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